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동 매
(金冬梅, JIN DONGMEI)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본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동 매
(金冬梅, JIN DONGMEI)

김동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문초록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는 반복되어 있는 시점이나 시간 위치를 지시하는 데 기초적인 작용을 작용하고 사용 빈도도 높다. 하지만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고 화용적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학습자는 유사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인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하여 의미·화용적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 시 오류를 적게 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는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와 관한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의 이해 양상에만 초점을 둔 한계점을 감안하여 화용적 특성의 이해 양상도 함께 살펴보며 모어 화자 사이의 차이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인 오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용어 사용, 개념, 분류체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본고에 적용한 용어, 개념, 분류체계를 규명하고 기술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교육학 연구 분야의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 방법을 참조하여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를 선정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의미·화용적 특성의 두 가지 층위로 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의미적 부분은 의미 성분 분석법을 적용하여 사전의 뜻풀이 및 코퍼스과 모두의 말뭉치 등의 예문을 분석하여 의

미 자질을 추출하였다. 또 객관성 및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로 방증하였다. 다음으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화행 분석 특을 마련하여 모두의 말뭉치 및 사전 예문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제시가 부족하며 특히 화용적 특성 부분의 제시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Ⅱ장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80명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30명 한국인 모어 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6명 학습자를 선정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피셔의 정확 검증을 통해 두 집단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는 유의미의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서 의미적 특성 및 화용적 특성에 따른 이해 양상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목표언어의 복잡성 또한 해당 부분의 지식의 부족함, 교육 부재로 인한 오류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의 분석 결과와 Ⅲ장에서의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반복상 시간부사를 교수·학습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밝혔다. 이어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과 학습자의 이해 양상 결과를 결합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서로 유의미하고 관련성을 갖추도록 연결한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적절하게 교수할 수 있도록 의미·화용적 특성에 따른 문맥 중심 교수법과 구분 교육에 따른 OHE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시간부사에 하위 부류로 취급하여 전반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설계한 교육 방안이 미흡한 양상이다.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구성되고,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루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반화하지 못한 한계점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이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반복상 시간부사, 중국인 학습자, 문맥 중심 교수법, OHE교수법

학 번 : 2021-29321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 4

2.1 국어학적 연구 ····· 4

2.2 대조언어학적 연구 ····· 8

2.3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 11

3. 연구대상 및 방법 ····· 13

Ⅱ.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 15

1.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념 및 목록 선정 ····· 15

1.1 반복상 시간부사의 용어 및 개념 ····· 15

1.2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 18

1.3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의 목록 선정 ····· 20

2.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 ····· 28

2.1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 ····· 28

2.1.1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 ····· 28

2.1.2 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 ····· 29

2.2 의미·화용적 특성 분석 절차 및 자료 ····· 30

2.3 각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 34

2.3.1 '다시', '또'의 의미·화용적 특성 ····· 34

2.3.2 '가끔', '때때로', '종종'의 의미·화용적 특성 ····· 45

2.3.3 '자주', '흔히'의 의미·화용적 특성 ····· 53

3. 교육현황 고찰 ····· 59

3.1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 순서 ····· 59

3.2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 양상 ····· 60

Ⅲ.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 분석 ····· 65
1. 조사 방법 및 절차 ····· 65
1.1 조사 참여자 정보 ····· 65
1.2 조사 도구 개발 및 절차 ····· 66
2. 조사 결과 분석 ····· 71
2.1. 의미적 특성에 따른 이해 양상 ····· 73
2.2 화용적 특성에 따른 이해 양상 ····· 83
3. 오류 원인 분석 ····· 103
3.1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한 오류 ····· 104
3.2 언어 내적 간섭으로 인한 오류 ····· 106
3.3 교육 부재로 인한 오류 ····· 107

Ⅳ.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설계 ····· 110
1.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목표 ····· 110
2.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내용 ····· 112
2.1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내용 위계화 ····· 113
2.2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내용 ····· 117
3.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방법 ····· 123
3.1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 124
3.2 0HE 교수법을 활용한 구분 교육 ····· 127

Ⅴ. 결론 ····· 132

참고문헌 ····· 135
부록 ····· 145
Abstract ····· 149

표 목 차

<표Ⅱ-1> 선행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관한 지칭 용어 및 규정 개념 ····· 16
<표Ⅱ-2>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 18
<표Ⅱ-3>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작성된 교육용 부사 목록 ····· 21
<표Ⅱ-4>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 목록 선정 절차 ····· 23
<표Ⅱ-5> 반복상 시간부사 사용 빈도수 ····· 24
<표Ⅱ-6> 반복상 시간부사의 점수와 교육용 등급 통계 결과 ···· 25
<표Ⅱ-7> 반복상 시간부사 어휘 오류율 ····· 27
<표Ⅱ-8> 본고에서의 화행 분류 ····· 33
<표Ⅱ-9> '다시', '또'의 사전 의미 기술 ····· 34
<표Ⅱ-10> '다시', '또'의 의미자질 ····· 40
<표Ⅱ-11> '다시', '또'의 화용적 특성 ····· 44
<표Ⅱ-12> '가끔', '때때로', '종종'의 사전 의미 기술 ····· 45
<표Ⅱ-13> '가끔', '때때로', '종종'의 의미자질 ····· 49
<표Ⅱ-14> '가끔', '때때로', '종종'의 화용적 특성 ····· 53
<표Ⅱ-15> '자주', '흔히'의 사전 의미 기술 ····· 53
<표Ⅱ-16> '자주', '흔히'의 의미자질 ····· 56
<표Ⅱ-17>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 ····· 58
<표Ⅱ-18> 각 교재에서의 반복상 시간부사 제시 순서 ····· 59
<표Ⅲ-1> 연구 참여자 정보 ····· 66
<표Ⅲ-2> 조사 도구 ····· 66
<표Ⅲ-3>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 출제 표준 및 예시 ····· 68
<표Ⅲ-4>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출제 표준 및 예시 ····· 69
<표Ⅲ-5>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 70
<표Ⅲ-6> 조사 절차 ····· 70

<표Ⅲ-7>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의 문항별 정확 검증 통계 결과 ····· 72
<표Ⅲ-8> '다시', '또'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 73
<표Ⅲ-9> '가끔', '때때로', '종종'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 77
<표Ⅲ-10> '자주', '흔히'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 81
<표Ⅳ-1>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목적 및 목표 ····· 111
<표Ⅳ-2> 반복상 시간부사의 빈도수 ····· 114
<표Ⅳ-3>『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 의해 등급화된 반복상 시간부사 ····· 115
<표Ⅳ-4> 반복상 시간부사 위계화 결과 ····· 116
<표Ⅳ-5> '다시'와 '또'의 교육 내용 ····· 119
<표Ⅳ-6> '가끔', '때때로', '종종'의 교육 내용 ····· 121
<표Ⅳ-7> '자주'와 '흔히'의 교육 내용 ····· 122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휘 없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2언어를 교수하는데 어휘교육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은 중요한 교수·학습 영역이다. 강현화 외(2017)에서는 어휘교육은 학습자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이르기까지 기초를 다지는 데 핵심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언급했다. 또, 문금현(2005)에서는 어휘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만 중요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고급 단계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능력이 고급일수록 맥락, 텍스트 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어휘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도 어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사는 어휘범주에서 다루는 한 가지로써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수식의 기능을 수행한다(유한경 외 2018: 284). 환언하자면,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진행 시 화자의 표현 내용을 풍부화하고 섬세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표현 내용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사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품사별 사용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사실에서도 부사의 중요성을 방증한다(서희정 2019:244).

시간부사는 시간적 위치를 표현하는 부사로써 사상(事象)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학습자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강현화 2020). 특히 반복상 시간부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 나눔터에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초 · 중 · 고급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한 범주의 시간부사이다(TAN WEI 2022). 환언하자면, 반복상 시간부사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상 시간부사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의 한 가지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미 또는 통사적 측면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권혜진(2008)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살펴보고 의미 차이 및 통사적 차이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최근에 들어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를 모국어 반복상 시간부사와 대조 및 비교를 진행하는 연구가 대두되었다. 예컨대, Le Thu Trang(2018), 장우정(2019)에서는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를 베트남어, 중국어와 의미 층위에서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 역시 대체로 의미 층위의 차이만을 염두에 두는 한계점을 지닌다.

다른 한편, 한국어 교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와 관련된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는 대부분 그 의미 제시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로 제시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단어 자체의 뜻에만 집중하여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적절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여 유창한 의사소통을 시도할 기회를 교재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층위의 특성뿐만 아니라 화용적 특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중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반복상 시간부사는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이다. 교육 대상으로 이들 부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을 뜻하는 ‘다시’와 ‘또’는 의미상 차이 없이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유우흠 2022). 따라서 초급 학습뿐만 아니라 중급 학습자 이르

기까지 ‘다시’와 ‘또’ 간의 대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1]. 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시-또’를 함께 살펴본다.

둘째, ‘때때로’, ‘가끔’, ‘종종’은 ‘다시’, ‘또’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 속에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임유종 1999:89). 한편, 진희릉(2015)에서는 '가끔-때때로', 만리(2010)에서는 ‘가끔-종종’에 대한 구분 필요성을 밝혔다. 권혜진(2008)에서는 '가끔, 때때로, 종종'에 대하여 의미·통사적인 층위에서 차이를 밝혔으나, 화용적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가끔-때때로-종종'을 한 묶음으로 살펴볼 가능성 및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단순히 '가끔, 때때로, 종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학습하고 있어, 삼자에 내포되고 있는 화용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종종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끔-때때로-종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자주', '흔히'는 위에서 제시한 두 쌍의 시간부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구분해야 할 경우도 있다. 최경아(2007)에서는 '자주, 흔히'를 이처럼 유의어로 변별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학습자가 이들 부사를 사용하는 양상 또는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2] 교육 효용성이 높은[3] ‘자주-흔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데 기여하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연구의 목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다시, 또, 가끔, 종종, 때때로,

---

1)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따라 초·중급 학습자는 모두 ‘다시’와 ‘또’ 간의 대치 오류를 범한 용례가 적지 않다.

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 따라 '자주'의 빈도수는 504이고, '흔히'의 빈도수는 457이다.

3)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따라 '자주'의 교육 필요성은 98.89이고, '흔히'의 교육 필요성은 96.84이다.

자주, 흔히 ′ 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분석하며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각 표현의 공통점 및 변별점을 파악한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을 파악하고 오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선정된 교육 항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방법과 내용을 모색한다.

2. 선행 연구

2.1 국어학적 연구

반복상 시간부사는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이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논하는 국어학 연구의 수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시간부사를 연구하는 논의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해 논한 부분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및 범주 설정과 관련한 연구이다. 둘째는 반복상 시간부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먼저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및 범주 설정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 범주로 간주한 연구와 독립적으로 빈도부사로 간주한 연구가 있다.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 범주로 간주한 연구에서는 최현배(1961), 이상복(1973), 민현식(1990), 우인혜(1991), 온영두(1998), 임유종(1999), 봉원덕(2004), 서정수(2005), 김상태(2005) 등이 있다.

최현배(1961)에서는 처음으로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때의 번수를 보이는 시간부사를 제기하였다.

민현식(1990)에서는 시간부사가 시제 및 상과의 관련을 초점에 두어서 상부사와 시제부사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반복상 시간부사를 상부사의 하위 부류로 다루었다.

우인혜(1991)에서는 시간부사에 내포되어 있는 어휘 의미의 상에 따라

반복 부사를 시간 부사의 하위 부류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용언 어휘상과의 호응 관계를 기준으로 반복 부사는 [변화상], [순간상], [지속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과 잘 어울린다고 지적하였다.

온영두(1998)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한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통사적 기능이 시간 축에서 시점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임을 밝혔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동작이나 행동의 되풀이하는 횟수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반복상 시간부사에서 '다시, 또, 도로'를 선정하여 문맥의 상황과 기능에 따라 부여된 주변 의미를 파악하고 동사 및 시상과 공기할 때 제한이 없음을 밝혔다.

임유종(1999)에서는 부사의 호응 관계를 바탕으로 부사의 범주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반복상 호응 부사를 시제/상 호응 부사의 하위 부류로 규정하였다.

봉원덕(2004)에서는 시간부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위치 시간부사와 양상 시간부사로 나누고 반복성 시간부사는 양상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다루었다. 반복성 시간부사는 주기성 유무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였다. 반복성 시간부사는 '-곤 하-', '-어 대', '-어 쌓' 등과 함께 반복상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통사적으로 반복상 시간부사는 상적 유형에 따라 분류한 동사[4]와 모두 결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서정수(2005)에서는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인 잦기 부사류어를 통사적 관점에서 용언을 수식할 때 제한이 없는 자유부사로 규정하였다.

김상태(2005)에서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빈도 시간부사를 포함하여 시간부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반복상 시간부사를 독립적으로 빈도부사로 간주한 연구에는 이상복(1973), 조동홍(2017), 조유미(2009), 백인영(2019) 등이 있다.

이상복(1973)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에 제외하여 독립적으로 빈도부사로 다루었다. 빈도부사를 다시 항시, 계속적 반복, 불연속적 반복, 단순 반복으로 나누었는데 반복상 시간부사와 공통적

4) 동사를 상적 유형에 따라 상태성 동사, 동작성 동사, 완성성 동사, 성취성 동사, 순간성 동사로 나누었다.

으로 반복 횟수를 초점에 두는 분류임을 알 수 있다.

조유미(2009)에서는 사건을 수량적으로 명시할 때 사용되는 빈도부사와 정도부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빈도부사는 횟수 상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 상의 배열도 정의한다고 언급하였다.

조동홍(2017)에서는 빈도부사를 시간부사 체계에서 독립시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빈도부사의 형태, 의미,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백인영(2019)에서는 빈도부사를 시간부사와 구분하여 독립된 부사로 취급하고, Heim(1982)의 제약부(restrictor) 개념을 도입하여 빈도부사의 의미구조를 살펴보았다. 빈도부사가 구현하는 양화 의미에 대하여 영향이 미치는 대상과 평가될 영역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음은 반복상 시간부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다루는 연구에는 이철우(1982), 고이금(1990), 오인근(2003), 권혜진(2008), 양송(2019), 유우흠(2022) 등이 있다.

이철우(1982)에서는 때의 번수를 나타나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주'와 '자꾸'에 대하여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 통사론적 입장에서 두 부사는 함께 쓸 수 없고, 시상과 서법에 제약 받지 않으나 용언의 의미에 따라 약간 어색함이 있고, '자주'는 조사 '들'과 결합할 수 있고 '자꾸'는 조사 '만'과 결합하여 강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이금(1990)에서는 '다시, 또, 도로'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각자의 의미자질을 추출한 후 서로 대치할 수 있는 용례를 제시하였다.

오인근(2003)에서는 '다시-거듭'이 포함한 총 3쌍 시간부사 유의어과 다른 3쌍 정도부사 유의어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유의어를 구분하는데 살펴보는 통사적 특성은 동사·형용사·관형사·명사·부사와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였다.

권혜진(2008)에서는 반복 시간부사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대응할 수 있는 5개 유의어군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총 40개 부사 간의 의미적 차이를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를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어휘적 의미 간의 차이를 제시하는 데 사전의 뜻풀이로 추출한 의미자질를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통사적 차이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사, 상, 시제, 서법 제약 및 연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양송(2019)에서는 '가끔-때로'를 포함하여 총 8쌍의 시간부사 유의어의 변별 정보를 다루었다. 유의어를 변별하는데 치환 검증법을 통해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부사, 접사, 조사 등과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는 결합 제약 검증법을 통해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의미 변별 표를 정리하였다.

유우흠(2022)에서는 문장의 다양한 의미 층위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다시'와 '또'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다.

국어 연구 분야에서는 시간부사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는 연구, 빈도부사로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와 유의어 관점으로 개별 어휘를 집중적으로 의미·통사 특성 또는 공기 관계를 살피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시간부사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하위부류로 간주함으로써 반복상 시간부사의 정의나 분류를 다루는 데 그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빈도부사로 독립적으로 살피는 연구는 반복 횟수 정도에 집중하고 시간축에서 시간과의 관계를 간과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유의어 관점으로 개별 어휘를 집중적으로 의미·통사 특성 또는 공기 관계를 살피는 연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변별 정보를 제시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연구적 의의가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체현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따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용어 및 개념부터 분류까지 다루고, 이어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권혜진(2008)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2.2 대조언어학적 연구

대조 언어학 분야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5]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타 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과 의미·통사적 층위에서의 대조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미 층위만의 차이를 대조하거나 의미·통사적 층위 외에 화용적 층위도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있지만 소부분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먼저 의미 특성상의 차이만 대조하는 연구에는 강춘영(2013), 고산(2014), Le Thu Trang(2018) 등이 있다.

강춘영(2013)에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및 <유의어 반의어 사전>을 통해 '다시-또'를 포함한 3쌍 유의어를 선정하고,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어휘와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고산(2014)에서는 시간부사를 의미 기능에 따라 반복 시간부사를 포함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반복 시간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중국어에 대응한 어휘와 의미적 특성의 차이를 위주로 대조 분석하였다.

Le Thu Trang(2018)에서는 시간부사의 체계를 다루고, 반복성 시간부사에서 '때로/때때로,더러/드물게,이따금/간혹/가다가' 3쌍 유의어를 선정하여 베트남어에서 대응되는 어휘와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 섬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은 의미·통사적 층위에서의 대조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에는 만리(2010), 양단(2011), 최옥춘(2013), 풍아려(2014), 장우정(2018), 진다위(2011), 석전손(2014), 신빙지에(2016), 양설(2022), 여문수(2022)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진다위(2011)에서는 통사적 특성 상의 차이만 대조 분

5) 대조 언어학 분야에서는 국어학 연구와 같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부류로 취급하는 입장과 빈도부사로 간주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부류로 취급하는 연구는 만리(2010), 양단(2011), 최옥춘(2013), 강춘영(2013), 고산(2014), 풍아려(2014), Le Thu Trang(2018), 장우정(2018) 등이 있다. 빈도부사로 간주하는 연구는 진다위(2011), 석전손(2014), 신빙지에(2016), 양설(2022), 여문수(2022) 등이 있다.

석하였고, 여문수(2022)에서는 의미·통사적 층위 외에 화용적 특성을 추가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만리(2010)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 '가끔-종종'을 포함하여 시간부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6종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고,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어휘와 대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미, 용법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양단(2011)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부사와 상부사로 분류하고, 또 상부사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포함하여 다시 7가지로 나누고, 중점적으로 한·중 상부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중 상부사의 의미, 시제와의 호응, 세부 분류체계, 용언과의 공기 양상 등 층위로 비교 대조하였다. 한·중 반복상 시간부사를 대조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복 횟수 양화 정도에 초점 두고 각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시간부사에서 '자꾸,자주', '때때로, 가끔'을 포함한 4쌍 유의어의 변별 정보를 다루고,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어휘와의 의미 차이, 결합 관계 및 용법의 차이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풍아려(2014)에서는 상(aspect)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간부사를 반복상을 비롯하여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시간부사의 유형에 따라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를 선정하여 상을 실현하는 방식 및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반복상 시간부사를 대조하는 데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13개 반복상 시간부사를 추출하고 의미 특성에 따라 다시 주기 및 비주기 반복으로 나누고, 같은 체계로 의미 및 공기 관계를 분석하였다.

장우정(2018)에서는 김상태의 반복성 시간부사의 체계를 따라 '다시,재차', '해마다, 매년', '늘,항상', '가끔, 간혹'을 선정하여 중국어에서의 대응 어휘 간의 의미적 및 통사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통사적 특성은 문장위치와 시제 두 가지 층위로 대조 분석하였다.

진다위(2011)에서는 한·중 부사어를 대조하는 데 빈도 부사어를 포함하여 5가지 부사어에 대하여 문장에서 사용하는 위치와 수식하는 대상 두

가지 층위로 대조 분석하였다. 빈도부사어에서는 구체적으로 '항상, 늘, 가끔, 또, 다시'와 대응하는 '常常, 總是, 偶爾, 又/再'의 의미 및 문장속의 위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석전손(2014)에서는 빈도부사를 극고빈도, 고빈도, 저빈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총 24개 빈도부사를 선정하여 중국어의 빈도부사와 의미·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주로 문장 속의 위치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신빙지에(2016)에서는 15개 한자어 계열 빈도부사를 선정하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과 어떤 의미적·구문론적 특성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구문론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공통적으로 문장에서의 위치, 수식 대상 및 부정소와의 공기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양설(2022)에서는 저빈도부사 '가끔, 때때로, 이따금, 간혹'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 의미를 통해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有時、時而、間或'와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위치 분석과 공기 관계를 통해 통사적 층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여문수(2022)에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와 CCL 말뭉치에서 대한 사용 빈도 통계 결과를 통해 선정한 '늘, 언제나, 總是, 老是'에 대하여 의미·통사·화용 세 층위로 대조 분석하였다.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사전 뜻풀이로 의미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통사적 특성은 문장에서의 위치과 공기 관계로 살펴보고,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주로 사용역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루었다.

대조 언어학적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한중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미·형태·통사적에 집중하여 비교하였다. 화용적 특성을 대조 분석하는 연구는 최근이어서야 대두하는 양상이다. 또,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문장 속의 위치, 공기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렇지만 손남익(1995)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통사론적 자유부사로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즉, 시간부사는 위치적으로 자유로워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부사 사전(손남익, 2014)』에서도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는 제약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반복상 시간부사는 문장 속에서의 위치가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보다 의미·화용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의의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3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수·학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의어 변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유의어 변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로 강현화(2001), 김연주(2016)가 있다.

강현화(2001)에서는 '때로-이따금-가끔-간간이' 포함한 총 7개 부사를 대상으로 변별 기제를 추출하는 실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대치검증법을 활용하여 의미상의 차이를 추출하고, 코퍼스를 활용하여 자주 공기하는 연어 정보를 살펴보았다.

김연주(2016)에서는 빈도부사는 시간부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늘, 언제나, 항상' 을 선정하였다. '항상,늘,언제나'는 시간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전체적인 국면에서의 잦기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이어서 시간부사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늘, 언제나, 항상'의 의미, 위치, 공기, 사용역 정보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의어 변별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는 최경아(2007), 최화정(2010), 진희릉(2015), 왕단(2015), 이정정(2018), TAN WEI(2022) 등이 있다.

최경아(2007)에서는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에서 27쌍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27쌍 유의어를 반복시간부사를 포함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의미자질 분석법

과 연어 관계를 활용하여 변별 기제를 추출하고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화정(2010)에서는 '다시-또-도로'를 포함하여 8쌍의 유의어를 교수하는데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대치 검증법, 정도 차이 비교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 차이를 변별하였다. 이어서 의미 차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진희릉(2015)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포함하여 시간부사를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교육용 의미를 고려하여 '가끔-때때로', '자주-자꾸' 등 포함한 9쌍 유의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의미 및 공기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단(2015)에서는 5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다시-또'를 포함하여 4쌍 유의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에 주로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이정정(2018)에서는 김민수(1971)와 민현식(1999)의 시간부사 체계에 따라 반복상을 포함하여 시간부사를 분류하고 총 6쌍 유의어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시간부사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해 각 부사의 의미 및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반복상 시간부사 유의어는 '자주-자꾸'로 선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주-자꾸'와 시제, 상 사이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간부사로 간주하였다고 밝혔다.

TAN WEI(2022)에서는 반복성 시간부사를 포함하여 시간부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양상 및 오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부사를 교수할 때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같이 제시해야 하고, 필요할 때 모국어를 활용해야 하고, 유의어 교육이 필요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4가지 유의점을 제시하고 적절한 교수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분야에서는 국어학적 연구와 비슷하게 시간부사

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개별 어휘 특성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연구보다 교육 방안까지 제시하는 연구가 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사용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보기 드물 편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부족하고 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학습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나타나는 이해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통사적 관점에서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반복상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부류로 접근하여 부수적인 연구로 진행되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연구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시간부사에 대하여 의미·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여 화용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용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념을 규명하고 그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념 정의 및 분류 기준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총 4개 절차를 통해 선정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자세히 검토한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

성에 대한 제시 양상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는데 드러나는 양상 및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다. 설문지는 인적 사항,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교육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정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80명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대조 집단 30명 모어 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6명의 고급 학습자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인식과 오류를 범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 알맞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Ⅱ.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연구를 위한 전제

본 장에서는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을 위해 이론적인 전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반복상 시간부사'의 용어 사용 및 개념에 대해 고찰한 후 그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논의에서 교육용 부사 목록을 선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여 이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교육 현황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교수하는 데 드러나고 있는 한계점, 또한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할 때 범한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념 및 목록 선정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접근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체계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검토하면서, 본 논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 및 범주를 다루도록 한다. 아울러 3장, 4장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1.1 반복상 시간부사의 용어 및 개념

한국어 부사체계에서 반복상(Iterative Aspect) 시간부사를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다루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다(김연주 2016). 하지만 이와 달리 동작의 횟수를 양화하여 정도를 표현하는 빈도부사로 다루

는 학자[6]들도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에 따라 시간부사의 하위 부류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그 상위 시간부사에 대한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재일(1953)에서는 시간부사는 어휘적 방법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제법[7]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민수(1978)에서는 시간부사는 어떤 서술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행(2000)에서는 시간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 정의하였다. 서정수(2005)에서는 시간과 관련되는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한정하는 수식어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간부사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시간부사는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나 사실의 시간 관계를 표현한다.

시간부사는 시간과 관계 깊은 부사이다. 따라서 이를 분류하는 방법은 시간부사가 나타나는 양상이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과 시간성을 드러나는 시상 체계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학자는 최현배(1961), 봉원덕(2004), 서정수(2005), 김상태(2005) 등이 있다. 시상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학자는 온영두(1998), 민현식(1999), 임유종(1999), 이주행(2000) 등이 있다. 위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표 Ⅱ-1> 선행 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관한 지칭 용어 및 규정 개념

학자	용어	개념
최현배(1961)	때의 번수를 보이는 때 어찌씨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온영두(1998)	반복상 시간부사	반복되어 있는 시점을 표현하는 부사이다.

6) 백인영(2019), 김연주(2016) 등.
7) 권재일(1953:333)에서는 시제법은 언어내용 전달에서 시간과 관련을 맺는 문법범주이다.

민 현 식 (1999)	반복상 시간부사	사건이 단순하게 또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을 나타나는 시간부사이다.
임 유 종 (1999)	반복상 호응 시간부사	반복상의 의미를 드러나는 부사이다.
이 주 행 (2000)	반복상 시간부사	사건이 단순하게 또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을 나타나는 시간부사이다.
봉 원 덕 (2004)	반복성 시간부사	어떤 상황이 되풀이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상 시간을 수량화하여 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반복을 지시한다.
김 상 태 (2005)	빈도 시간부사	일상적으로 특별한 어휘적 내용과 같이 변화하는 시간상황의 빈도를 명시한다.
서 정 수 (2005)	잦기 부사류어	어떤 동작이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Ⅱ-1>에서 제시하여 있듯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지칭하는 용어와 규정하는 개념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는 '반복상 시간부사'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복상 시간부사'는 타 용어보다 한국어 시간을 표현하는 데 하나의 핵심 요소로 삼은 시상와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명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최근 논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어서 개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반복상 시간부사는 공통적으로 발화속의 명제나 사건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명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반복되어 있는 시점이나 시간 위치를 지시할 때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한다.

1.2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간부사는 보편적으로 크게 의미, 시상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반복상 시간부사는 시간부사의 하위분류로서 이와 다르게 주로 빈도 규칙에 따라 분류되거나 한 집합으로 묶어 분류되지 않고 있다. 즉,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 또는 주관성이 개입되어 아직 합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본 논문에 적절한 분류체계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선 반복상 시간부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집합으로 분류한 학자들은 최현배(1961), 임유종(1999), 이주행(2000) 등이 있다. 하지만 각 시간부사는 공통적으로 '반복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개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다시, 또, 자주, 흔히, 날마다'는 모두 반복상 시간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또' 는 단순한 반복성을 나타내는 반면, '자주, 흔히, 날마다'는 연속적인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자주, 흔히'와 '날마다'는 공통적으로 연속적인 반복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기적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개 시간부사를 한 집합으로만 구성하면 개별의 의미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빈도 규칙에 따른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를 살펴보겠다.

<표Ⅱ-2>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

학자	분륜		
서정수(1995)	잦기 부사류어	저빈도	
		중빈도	
		고빈도	
온영두(1998)	반복상 시간부사	단순 반복	
		규칙적인 연속반복	
		불규칙 연속반복	
민현식(1999)	반복상 시간부사	단순 반복	
		주기 반복상	규칙
			불규칙

<table>
<tr><td rowspan="5">봉원덕(2004)</td><td rowspan="5">반복성 시간부사</td><td rowspan="3">비주기성 반복</td><td colspan="2">단순 반복</td></tr>
<tr><td colspan="2">연속 반복</td></tr>
<tr><td colspan="2">무한 반복</td></tr>
<tr><td rowspan="2">주기성 반복</td><td colspan="2">규칙적 반복</td></tr>
<tr><td colspan="2">불규칙적 반복</td></tr>
<tr><td rowspan="4">김상태(2005)</td><td rowspan="4">반복상 시간부사</td><td colspan="3">단순 반복</td></tr>
<tr><td rowspan="3">주기 반복</td><td colspan="2">규칙적 반복</td></tr>
<tr><td rowspan="2">불규칙 반복</td><td>고빈도성</td></tr>
<tr><td>저빈도성</td></tr>
</table>

위의 제시한 분류 양상을 살펴보면 서정수(1995)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빈도를 저, 중, 고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된 모습이다. 기타 분류보다 빈도를 더 직관적으로 근거로 삼아 분류하였다. 즉, 반복의 횟수 측면에만 집중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되 내부의 규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온영두(1998), 민현식(1999), 봉원덕(2004), 김상태(2005)에서는 반복 횟수 정도보다는 내부 반복 주기를 염두에 두고 분류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영두(1998)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단순반복, 규칙적 연속반복, 불규칙적 연속반복으로 분류하였다. 민현식(1999)에서도 비슷하게 분류하였으나 온영두(1998)와 다르게 규칙적 연속반복과 불규칙적 연속반복을 주기 반복상으로 규정하였다. 환언하자면, 민현식(1999)에서의 분류 방식은 온영두(1998)에서의 체계보다 한층 더 귀납된 모습이다. 봉원덕(2004)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분류는 다른 논의에서의 체계보다는 구체적이지만, 그 구체성으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에는 적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김상태(2005)에서의 분류 방식도 이와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김상태(2005)에서는 반복 횟수와 주기를 함께 기준으로 삼은 양상으로 보여주어 이를 따르기에는 더욱 어려운 면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분류하는 데 고려한 요소는 반복 횟수의 주기성이다. 먼저 주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초기 분류가 이루어진다. 주기성이 있는 것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다시 구분하고, 주기성이 없는 것은 보편적으로 단순 반복으로 구분한다.

종합해서 보면 봉원덕(2004)의 체계와 비슷한 양상임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듯이 어느 체계이든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분류하지 않고 한 집단으로 묶는 방법은 시간부사 간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여, 지나치게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머지 분류체계는 단순성, 주기성, 반복 횟수 차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통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의 경우에는 학습의 용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분류라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의 분류체계를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데 단점이 가장 적은 체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정수(1995)의 체계를 따라 반복상 시간부사를 분류하고자 한다. 서정수(1995)의 체계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분류하지 않고 한 집단으로 묶는 방법보다 세부적이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할 때 반복상 시간부사의 내부 구분 기준 없이 혼란스럽지 않고, 반복 횟수 상황에 따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 나머지 분류체계에 비교해 간략하기에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할 때 너무 세부적인 체계로 인한 당황감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환언하자면, 서정수(1995)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저빈도, 중빈도, 고빈도로 나누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반복상 시간부사를 익숙하고 활용하는 데 복잡하지 않고 구분하기 쉬우며 구체적인 기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판단한다.

1.3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의 목록 선정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방법과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반복상 시간부사를 논의하는 데 언어학적 측면으로 한·중 대조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육용 목록을 선정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선정 방법을 사용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8]를 참조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표Ⅱ-3>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작성된 교육용 부사 목록

연구자	어휘 목록	선정 절차
진희릉 (2014)	교육용 시간부사 유의어 목록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어휘 목록을 참조하여 1차 목록 추출. 5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시간부사를 1차 목록과 3회 및 이상 출현한 것을 2차 목록으로 선정. 연구에서 따르는 시간부사 체계대로 유형화하기. 선정된 시간부사를 유의어 사전에서 확인한 후 확정 최종 목록 추출.
보일평 (2017)	교육용 추측 양태부사 목록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측 양태부사를 종합하여 1차 목록을 추출. 2. 최소 두 명 연구자가 인증한 추측 양태부사를 선정. 3. 말뭉치를 통해 빈도 높은 추측 양태부사를 선정.
린미 (2018)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 목록	1. 세종 말뭉치를 통해 고빈도 접속부사 추출. 2. 서상규(2000) 및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접속부사 선정. 3.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문항에서 출현 빈도 높은 접속부사 선정. 4.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8) 더 광범위한 어휘 목록을 선정 절차를 검토한 것은 강현화(2014.6), 강현화(2014.8), 강현화(2015)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부사 목록을 선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정리하였다.

조방방 (2021)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 목록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정 부사 목록을 종합하고 부정 부사 아닌 것을 제외하여 1차 목록 추출. 2. 코퍼스를 활용하여 부정문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부정 극어부사를 선정. 3. 조남호(2003), 김광해(2003), 김중섭 외(2011), 강현화 (2014.6·2014.8·2015)에서 최소 3명의 연구자가 인증한 부사 부정극어를 선정.
종예 (2021)	교육용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1. 교재에서 제시한 '상징부사+용어'형을 <표준국어대사전>으로 검증한후 1차 목록 추출. 2. 기존 5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상징부사+용어'형을 선정. 3.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통해 사용 빈도 높은 상징부사+용어'형을 선정.

위의 연구들에서 교육용 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빈도, 중복도, 부사의 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역시 공통적으로 제기한 빈도 및 중복도 검증을 따른다. 다른 한편 학습 교육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효율성 및 실제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난 오류율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반복상 시간부사를 종합한다. 이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의 직관적인 감각을 통해 반복상 시간부사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판단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즉 중복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세 명의 연구자가 인정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여 1차 목록을 추출한다. 다음은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를 활용하여 빈도수를 확인

하고, 교육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어휘 오류율을 통해 다시 한 번 교육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Ⅱ-4>와 같다.

<표Ⅱ-4>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 목록 선정 절차

선정 과정	선정 방법	비고
1차 선정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어휘를 종합하여 1차 목록 추출.	추출된 1차 목록에 제시한 어휘 가운데 최소 세 명 전문가가 언급되어야 함.
2차 선정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를 통해 빈도 낮은 반복상 시간부사를 제외.	빈도수 낮은 어휘를 제외함.
3차 선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적 효용이 낮은 부사를 제외.	-
4차 선정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이용하여 오류율을 검증.	오류율이 낮은 어휘를 제외함.
5차 선정	서정수(2005)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구분하기 힘든 유의어쌍을 선정하기.	-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 목록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에 제시된 부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관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직관을 이용하여 1차 목록을 추출한다. 아울러 개별 학자의 경험을 과잉 의존하여 너무 주관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한 번만 제시된 부사는 제외하고 종합한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분류는 학자의 다양한 판단, 기준 등 요소들이 개입하면서 제시된 부사 수량이나 구성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총 150개 반복상 시간부사 중 3번 이상 출현하는 20개 어휘들을 1차 목록으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출현 횟수가 9회인 '가끔', 8회인 '때때로', 7회인 '자주, 이따금', 6회인 '날마다, 다시, 또', 5회인 '해마다, 매일, 왕왕, 종종, 번번이', 4회인 '도로, 또다시, 더러, 간혹, 간간이' 3회인 '흔히, 어쩌다가, 매번'이 선정되었다.

두 번째 절차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 의해서 1차 목록의 빈도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빈도수가 낮은 반복상 시간부사를 제외한다. 반복상 시간부사 사용 빈도수를 아래 <표Ⅱ-6>로 정리할 수 있다.

<표Ⅱ-5> 반복상 시간부사 사용 빈도수

빈도순위	반복상 시간부사	빈도수	빈도순위	반복상 시간부사	빈도수
1	또	5703	12	간혹	92
2	다시	3619	12	더러	80
3	자주	504	13	때때로	67
4	흔히	457	14	도로	65
5	가끔	375	15	매번	46
6	매일	296	16	간간이	42
7	또다시	199	17	번번이	33
8	종종	112	18	어쩌다가	24
9	이따금	112	19	왕왕	8
10	해마다	101	20	날마다	해당없음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 따른 결과 빈도수가 낮아 하위 5위를 차지한 '매번, 간간이, 번번이, 어쩌다가, 왕왕'을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는 원어민 화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날마다'에 대한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외한다. 다른 한편 '날마다'의 경우는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서만 기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어휘 내용 부분에서도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를 통해 검색한 결과 '날마다'에 대한 학습자의 오류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날마다'

를 사용하는 데 실수나 오류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어휘로 판단하고 제외하였다.

2차 목록을 추출한 후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적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를 이용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반복상 시간부사 점수와 교육용 등급은 아래 <표Ⅱ-6>로 정리할 수 있다.

<표Ⅱ-6> 반복상 시간부사의 점수와 교육용 등급 통계 결과

반복상 시간 부사	등급	빈도 순위	학습용 기본 어휘	학습자 사전	교재 말뭉치	토픽 기출	한국어 교육 점수	빈도 점수	총점
또	초급	46	15	15	15	15	60	39.85	99.85
다시	초급	71	15	15	15	15	60	39.77	99.85
자주	초급	935	15	15	15	15	60	36.89	96.89
흔히	중급	950	15	15	15	15	60	36.84	96.84
가끔	초급	1186	15	15	15	15	60	36.05	96.05
매일	초급	1342	15	15	15	15	60	35.53	95.53
종종	중급	3314	15	15	15	15	60	28.96	88.96
해마다	초급	4486	15	15	15	15	60	25.05	85.05
도로	중급	5147	15	15	15	15	60	22.85	82.85
때때로	초급	5234	15	15	15	15	60	22.56	82.56

또다시	중급	2557	15	15	0	15	45	31.48	76.48
이따금	중급	3819	15	15	0	15	45	27.27	72.27
간혹	-	-	-	-	-	-	-	-	-
더러	-	-	-	-	-	-	-	-	-

위 도표에 제시하였듯이 '간혹, 더러'에 관한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간혹'은 한국어교수학습쉼터 어휘 내용 부분에서도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를 통해 검색한 결과 '간혹'에 대한 학습자의 오류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러'의 경우는 한국어교수학습쉼터 어휘 내용 부분에서 관련 정보가 존재하고 있지만 부사로 사용하는 학습자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혹, 더러'를 제외하였다.

네 번째 절차는 교육 가치를 검증하여 추출한 3차 목록의 어휘에 대한 오류율 검증이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사이트에서의 원시 말뭉치, 오류 주석 원형태, 오류 주석 교정 형태 등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류율을 검증하도록 한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서는 형태 주석 말뭉치를 포함하여 총 네 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 주석 말뭉치의 용례는 원시 말뭉치의 용례에서 추출된 부분이다. 즉, 형태 주석 말뭉치의 용례는 원시 말뭉치의 용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오류 어휘 구현수를 계산할 때 형태 주석 말뭉치의 수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오류 주석 원형태는 원시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이다. 그러므로 어휘 구현수를 계산할 때 오류 주석 원형태의 수치도 제외하도록 한다. 오류 주석 교정 형태는 이와 달리 원시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수치이므로 어휘 구현수를 계산할 때 이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또한 오류 주석 원형태와 오류 주석 교정 형태의 용례는 서로 다른 용례이므로 어휘 오류 구현수를 계산할 때 두 집단 수치를 합한다. 다른 한편,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는 오류율도 함께 제공하였지만, 이는 해당 어휘가 전체 표본 사용 횟수에서 오류를 범한 계산 결과이다. 이는

개별 어휘 오류율과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어휘 오류율은 어휘 오류 수량이 총 어휘 구현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나는 수치이며 어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강정희 2020). 어휘 오류율을 계산하는 도식은 아래와 같다.

$$\text{어휘오류율} = \frac{\text{오류 어휘 구현수}}{\text{어휘 구현수}} \times 100$$

그러므로 본고는 원시 말뭉치, 오류 주석 원형태, 오류 주석 교정 형태 말뭉치 등 세 가지 표본의 수량을 통해 어휘 오류율을 계산하여 3차 목록에 제시한 어휘의 교육 가치를 한층 더 검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Ⅱ-7>로 정리할 수 있다.

<표Ⅱ-7> 반복상 시간부사 어휘 오류율

반복상 시간부사	오류 어휘 구현수[9]	어휘 구현수[10]	어휘 오류율
때때로	3	54	5.55%
가끔	91	1785	5.10%
종종	5	99	5.05%
또	313	7345	4.26%
자주	149	5508	2.71%
흔히	4	170	2.35%
다시	70	3351	2.09%
매일	78	4186	1.86%
해마다	1	88	1.14%
또다시	0	13	0%
도로	-	-	-
이따금	-	-	-

어휘 오류율을 살펴보면 '매일, 해마다, 또다시'의 오류율은 다른 부사와 비해 낮은 편이다. '도로'는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서 '부사'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없다. '이따금'의 경우는 형태 주석 말뭉치를 포함한 4가

9) 오류 주석 원형태와 오류 주석 교정 형태 말뭉치 표본을 합친 결과이다.
10) 원시 말뭉치, 오류 주석 교정 형태 말뭉치 표본을 합친 결과이다.

지 표본에서 모두 용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은 '매일, 해마다, 또다시, 도로, 이따금'을 제외하여 최종의 연구 대상을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 목록을 서정수 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구분하기 힘든 유의어 쌍을 선정하면 그 결과 저빈도 반복상 시간부사 '다시, 또', 중빈도 반복상 시간부사 '가끔, 때때로, 종종', 고빈도 반복상 시간부사 '자주, 흔히'이다.

2.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

본 절에서는 선정된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의 의미적 및 화행적 특성을 저빈도 반복상 시간부사, 고빈도 반복상 시간부사의 순서대로 검토하여서 설문지를 설계하고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 기초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하다.

2.1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

2.1.1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논의에서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존 논의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전 의미 기술에 대한 분석과 의미의 성분 분석을 위주로 다루어 왔다.

우선 단순히 사전 의미 기술을 바탕으로 살펴본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은 주로 강춘영(20113), 장우정(2019)을 비롯한 타국어의 시간부사와 비교하는 연구, 또는 김연주(2016), 진희릉(2015)을 비롯한 유의어

변별 기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은 유의 부사 사이의 공통 및 개별 의미를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다음으로 의미 성분분석법을 활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는 최경아(2007), 권혜진(2008) 등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서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자질을 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전 의미를 해석하여 살펴보는 논의보다 한 층위 더 세밀하게 다루었다. 그렇지만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자질을 체계적으로 다룬 논의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단순히 사전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 의미 성분분석법을 활용하여 의미자질을 살펴보는 것이 교육 효용성을 높이는 데 더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1.2 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최경아(2007)에서는 '자주, 흔히'의 화용 정보를 제시하였으나 간단하게 '자주자주, 흔히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여문수(2022)에서 살펴본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은 문형 유형별 호응 양상과 사용역을 다루었으나, '언제나, 늘' 은 문형 유형별은 제약이 없고, 사용역 빈도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연구 자체가 드물고 간략하다. 다른 한편 유우흠(2022)에서는 화행 층위에서 '또'는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다루는 최경아(2007), 여문수(2022)와 같이 관용어 유형 또는 문형 유형별의 차이나 사용역 빈도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유우흠(2022)처럼 화행 이론을 활용하여 화행 층위로 접근하여 반복상 시간부사가 드러나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금현(2020)에서 언급하였듯이 화·청자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어

휘가 다르며 드러나는 화용적 정보인 발화 의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범범(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손성 이론은 화·청자 간의 인간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거시적으로 화행 층위로 반복상 시간부사가 포함된 문장의 화행 유형을 살펴보고 미시적으로 공손성 이론을 활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쓰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2 의미·화용적 특성 분석 절차 및 자료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성분 분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사전에서 기재한 어휘들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고 의미자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참고할 사전은 한국어 교육 연구 논서에서 많이 참고로 사용한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 부사사전』[11]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어휘소를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성분과 서로 다른 어휘소를 구별해 주는 시차적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부사 사전(손남익, 2014)』에서 제시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자질과 기타 논의에서 부수적으로 다룬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자질을 모두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모두 출처를 표시하였고, 출처가 없는 예문의 경우 연구자가 제작한 것이다.

이어서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행 이론을 적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가 드러나는 화자 감정, 발화 의도 등을 살펴보고 화·청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화용적 쓰임을 살펴보

11) 『표준국어대사전』을 선정한 이유는 권혜진(2008), 최옥춘(2013), 조방방(2021)에서 공통적으로 참고 사전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표준』이라고 표시한다. 『연세한국어사전』을 선정한 이유는 최옥춘(2013), 조방방(2021)에서 공통적으로 참고 사전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연세』라 표시한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선정한 이유는 조방방(2021)과 시간부사 의미·통사적 특성을 연구하는 서언(2017)에서 참고 사전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고려』라 표시한다. 『우리말 부사사전』을 선정한 이유는 권혜진(2008)과 시간부사 유의어 변별 기제를 연구하는 황유연(2020)에서 참고 사전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우리말』이라 표시한다.

고자 한다.

우선 화행 이론은 한 개의 화행이 최소한 하나의 발화 의도가 지닌다고 가정하고, 언어로 행하는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강범모 2018:253). 결국 화행론은 발화의 의미를 행위로 강조하는 것이다(송경숙 2003). 또 화행론의 시작과 발전에 기여하는 Austin(1962), Searle(1972)의 이론에서는 화행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핵심 요소는 발화의 목적이고 의도를 뜻하는 발화수반행위이다(성미정 2023). 즉, 반복상 시간부사가 화행 층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나 발화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를 다루는 것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본고는 화행이론을 적용하여 발화수반행위의 체계를 반복상 시간부사의 발화 의도의 분류 기준으로 삼아 언어 사용 층위에서 드러나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동혁(2016)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화의 목적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대화 참여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인 화·청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다. 환언하자면, 화행에서는 발화가 제대로 수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상철(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행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을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 공손성의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언어 사용 습관을 생각해보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직접 발화보다 추론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간접 발화가 보편적이며 이는 공손과의 관련이 밀접한 것이다(원금숙 2016). 공손에 대한 접근은 최초 Grice(1975)가 제기하고 Lakoff(1973), Leech(1983), Brown&Levinson(1987)를 거쳐서 공손에 관한 이론이 체계화되었다. 공손 이론은 화·청자 쌍방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언어에 드러나는 공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Brown&Levinson(1987)에서는 '체면'이라는 개념으로 공손의 언어 보편성을 해석하고, 공손은 대화 참여자인 화·청자 간의 체면 손상을 줄이도록 완화하는 복합적인 체계이라고 밝혔다(원금순 2016 재인용).

Brown&Levinson(1987)의 '체념'은 Goffman(1967)의 체념(face)의 개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공적 이미지(public self-image)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체면을 타인의 인정 또는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자신의 권리가 타인의 방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독립되기를 요구하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인 화·청자들은 상호작용 중에 서로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을 바라지만 위협하는 행위도 있다. 이는 적극적 체면 위협과 소극적 체면 위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고 배려하는 데에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소극적 체면을 유지하고 배려하는 데에는 소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사범범 2018). 요컨대, 공손은 발화수반행위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며 공손 이론에서 체면 위협 행위과의 관련이 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화행 이론을 적용하여 해당 화행 유형을 파악하고, 화·청자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손 이론을 활용하여 이에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을 원금순(2016), 사범범(2018), 조방방(2021)를 참조하여 적극적 체면 지킴/위협, 소극적 체면 지킴/위협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발화수반행위의 분류 체계를 정리한 학자는 오스틴(Austin), 썰(Searle) 등이 있다. 오스틴(1962)의 분류 체계에 대해 썰은 6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이 제안되었다. 이후 여러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박용익(2010)의 분류 체계는 오스틴의 체계를 보완한 썰(Searle)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세분화하였다. 또한 언어학 분야에서 화행 기능에 대한 분류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유혜령·김유미(2008)에서는 썰(Searle)의 분류 체계와 이민선(2004)이 나열된 한국어교육용 발화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입장에서의 화행 기능 목록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발화수반행위의 분류 체계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앞서 논의의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표Ⅱ-8> 본고에서의 화행 분류

확언화행	제시적	주장적	주장, 예측, 예언, 진술, 보고, 전달, 소개, 추측, 판단, 평가, 이유
		전언적	전언, 통보, 설명,
	반응적	수용적	확인, 긍정, 동의, 찬성, 인정, 시인, 확신,
		거부적	의의, 반론, 이론, 의심, 의혹, 질문, 의문,
		이론적	부인, 부정, 반박, 반증, 반대,
	고수적	재주장적	증명, 증거, 단언, 확언
		철회적	철회, 취소
지시화행	구속적 지시	정당한	지시, 주문, 명령, 규정, 요청, 엄명, 당위, 요구, 거절
		부당한	협박, 강요, 전제 구주적 명령, 경고, 금지,
	비구속적 지시	화자선호	지침, 충고, 힌트, 조언, 권고
		쌍방선호	요망, 제안, 발의, 제의, 주의
		청자선호	평등적 부탁, 불평등적 부탁,
언약화행	단순언약	화자선호	의지표명, 계획발표, 맹세, 선고, 선포
		청자선호	의사표명, 준비표명, 약속, 수락, 선언, 선서, 허용, 승낙, 허락, 양보, 확약, 계획,
	복합언약	상호이해 합치	약정, 임명, 지명, 호명
		상호이해 불일치	보장, 보증
정표화행	선호감	쌍방선호	감사, 호감, 환영, 기원, 축하, 칭찬, 위로, 초대,
		화자선호	비웃음, 조롱, 우쭐대기, 환호, 경탄, 희망, 놀람,
	혐오감	쌍방혐오	사과, 걱정, 조문, 공감, 동정, 애도, 개탄,
		화자혐오	불안, 한탄, 성내기, 불만토로, 화내기, 빈정대기, 비난

다른 한편, 본고에서는 코퍼스 확장판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화용적 특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코퍼스 확장판은 문어와 구어의 비율이 94:6으로 되어 문어 위주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00만 어절 규모로 된 모두의 말뭉치의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런 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2.3 각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

2.3.1 '다시', '또'의 의미·화용적 특성

2.3.1.1 '다시', '또'의 의미적 특성

'다시-또'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표준』, 『연세』, 『고려』, 『우리말』에 기재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Ⅱ-9> '다시', '또'의 사전 의미 기술

사전	다시	또
『표준』	(1)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2)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3)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4)다음에 또. (5)이전 상태로 또.	(1)어떤 일이 거듭하여. (2)그 밖에 더. (3)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로 '-으면' 뒤에 쓰이거나 일정한 뜻을 가지는 의문문에 쓰여)) 그래도 혹시. (5)그뿐만 아니라 다시 더. (6)단어를 이어 줄 때 쓰는 말. (7)((의문 대명사 앞에 쓰여)) (구어체로)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8)((같은 말이 나란히 쓰일 때 그 사이에서 관형사 '무슨'과 함께 쓰여)) 앞에 있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의아하게 여길 때 쓰는 말.

『연세』	(1)되풀이해서. 반복해서. (2)(방법 등을 고쳐서) 새로이. (3)(하던 것을) 이어서. (4)뒤에. 나중에. (5)새로. (6)[주로 '다시는'의 꼴로 쓰이어] 뒤에 더는.	(1)(어떠한 행동이나 사실이) 거듭하여. (2)[어미 '-으면'이나 '-어야' 다음에 쓰이어] 양보하자면. 그래도. (3)그뿐이 아니고. 그밖에 다시 더.
『고려』	(1)이전 상태나 행동이 그쳤다가 이어지면서 새로이 또. (2)방법이나 방향을 달리 고쳐서 새로이. (3)이전 상태나 행동을 되풀이해서. 또는 겹쳐서. (4)이전 상태대로. (5)(주로 '없다'앞에 쓰여) 그 밖에 또. (6)하다가 그친 것을 또 잇대어. (7)다음에 또. (8)되돌아서 반대편이나 앞서 나가던 쪽으로.	(1)어떤 사태나 행동이 거듭하여. (2)앞의 내용에 다른 내용을 더할 때 쓰여 두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말. '그 밖에 더'의 뜻으로 쓰인다. (3)그래도 혹시.
『우리말』	(1)했던 일이나 하던 것을 되풀이하여 또. (2)방법이나 방향을 달리 고쳐서 새롭게. (3)하다가 그친 것을 잇대어. 되풀이해서. (4)다음에 또. 있다가 또.	(1)어떠한 행동이나 사실이 거듭 되풀이하여. (2)양보하자면. 그래도. (3)그밖에 다시 더. (4)그래도 혹시. (5)놀람이나 안도의 뜻으로 쓰임.

<표Ⅱ-10>에 열거하였듯이 '다시'는 네 사전에서 '되풀이, 고쳐서 새로이, 이어서 계속, 다음에 또' 네 가지 의미를 공통적으로 제시되였다. 『표준』, 『고려』에서는 '이전 상태대로', 『연세』, 『고려』에서는 '그 밖에 ', 『고려』에서는 가던 노선을 되돌아서 반대쪽이나 앞서 나가던 쪽으로 계속 가는 의미를 더 제시하였다. '또'의 경우는 네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거듭하다, 그 밖에 더, 혹시'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준』, 『우리말』에서 모두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제시하였다. '또'의 나머지 다양한 의미는 『표준』에서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다시'와 '또'는 공통적으로 반복을 의미하는 '되풀이, 거듭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로 차이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어휘의 의미자질도 서로 다른 모습이다. 다음 '다시', '또'의 사전 의미로 의미자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ㄱ. 건강검진을 다시/또 해 볼 필요가 있다.

ㄴ. 청중의 열렬한 박수 소리에 그는 노래를 다시/또 불렀다. - 『한국어기초사전』

ㄷ. 또/다시 울었다.

ㄹ.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또/*다시 있네. -『연세』

ㅁ. 하루 또/*다시 하루가 흐른다. -『표준』

예문 (1ㄱ)는 '건강검진을 하다'라는 행위를 이미 한 번 또는 몇 번 해본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한 번 더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서술이다. 즉, '또'는 원래는 한 번 하면 되는데, 현재는 최소 한번이상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1ㄴ),(1ㄷ)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다', '울다'의 행위를 한 번 완성된 상황에서 다시 반복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석규(1988), 고이금(1990), (손남익, 2014), 유우흠(20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시'와 '또'는 해본 적이 있던 행위를 중복하여 또 한 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복]의 의미자질이 지닌다는 것

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1ㄹ)를 보자면, '또'를 통해서는 '어이없는 일'이 거듭하여 한 번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비문이 된다. 이는 '다시'가 행동을 되풀이하는 [+반복]의 이기에 동사와 연결 가능하지만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인 '있다'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는 행위를 비롯한 어떤 상황이 거듭하는 [+반복]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또 (1ㅁ)에서는 '또'는 '하루', '하루'를 거듭하여 [+반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단어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의 경우를 보자면, '다시'는 [+반복]의 의미자질을 실현할 수 있지만 [+연결]의 자질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또'는 손남익(2014), 고이금(1990)[12]에서 밝히듯이 [+반복], [+연결]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ㄱ. 과제를 다시/또 작성해야 한다.
ㄴ. 그림을 다시/또 그린다.

예문 (2ㄱ)에서 '다시'를 통해 화자는 '과제를 작성하다'라는 행위를 단순히 다시 한 번 반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즉, 과제의 양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아 더 많은 양을 얻기 위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에 만족하지 않아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는 단순히 과제를 반복하여 완성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뜻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2ㄴ)도 '다시'를 통해 그림의 양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질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스타일로 새롭게 그린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즉,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로이 진행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또'는 수정하여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는 뜻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

12) 고이금(1990)에서는 '또'는 [+반복], [-반복], [+나열]의 의미자질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나열]을 대등 연결과 강조 연결로 나누어 설명하기에 여기에서는 [+연결]의 의미자질이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금(1990), 윤재학(2007), 유우흠(20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시'는 [+수정]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ㄱ. 쉬다가 다시/*또 운동한다.
ㄴ. 울지 말고 다시/*또 달려.

예문 (3ㄱ)에서 '다시'를 통해 '운동하다'라는 행위가 끝나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과정에서 쉬는 행위를 하고 계속 운동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운동을 그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끝나기 전의 그 과정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계속 운동이라는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또'는 그렇지 않다. (3ㄴ)도 마찬가지로 '다시'를 통해 '달리다'라는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는 행위가 끼어들고 우는 행위를 그치고 '달리다'라는 행위를 이어서 계속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에 따라 고이금(1990), 손남익(2014)[13], 유우흠(2022)에서 밝힌 듯이 '다시'는 [+계속]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반면,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4)ㄱ. 다시 직장에 돌아가야지.
ㄱ'.*또 직장에 돌아가야지.
ㄴ. 운동을 통해 건강이 다시 좋아졌다.
ㄴ' 운동을 통해 건강이 *또 좋아졌다.

(4ㄱ)에서 직장에 돌아가는 행위 자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지금은 직장 일을 그만두어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뜻이 더 뚜렷하다. 이는 방법이나 방향을 수정하여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뜻이 더 명확하다. 하지만 (4ㄱ')는 그렇지 않다. (4ㄱ')에서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의미보다 반복하는 뜻이 뚜렷하다. 또

13) 손남익(2014)에서는 '다시'는 [-중지], [+지속]의 의미자질을 제시하며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로 해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남익(2014)에서도 '다시'는 [+계속]의 의미자질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 (4ㄴ)에서도 '건강이 좋아지다'라는 상태로 복원 또는 회복하였다는 표현이다. 이와 대조하는 (4ㄴ')는 자연스럽지 않는 비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는 고이금(1990), 윤재학 (2007), 손남익(2014), 유우흠(2022)[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상태로 복원하는 뜻을 가지는 [+회복]의 의미자질도 지니고 있다고 알수 있다.

(5) ㄱ. 괜찮아요. 충분해요. 여기 *다시/또 있어요.
ㄴ. *다시/또 필요한 거 있나요?

(5ㄱ)에서는 '또'를 통해 화자가 '여기 또 있다'를 발화하면서 앞의 '충분하다'에 대하여 한층 더 증명하였다. 환언하자면, 어떤 특정 물품이 이미 사용하는 기초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다. (5ㄴ)에서도 '또'를 통해 '필요한 거'는 이미 제공하는 여러 물품 외에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지 않다. 즉, '또'는 손남익(2014), 유우흠(20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외에 별도로 부가하는 [+추가]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다시'는 없는 것이다.

(6) ㄱ. 고양이라면 *다시/또 몰라.
ㄴ. 철수라면 *다시/또 모르겠지.

(6ㄱ)에서 '또'를 통해 다른 동물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양이라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시'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6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해결하지 않은 상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철수가 하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추측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다시'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더불어 손남익(2014)에서 '또'는 [+만약], [+의심],

14) 고이금(1990)에서는 '다시'는 [+원점회귀], 윤재학(2007)에서는 [원상회복], 유우흠(2022)에서는 [+복원]의 의미자질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회복]으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지시하는 대상은 같다.

유우흠(2022)에서는 [양보]의 의미 성분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또'는 만약 이러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추측/의문]을 지니고 있다고 추출할 수 있다.

(7)ㄱ. 왜 *다시/또 내가 해?
ㄱ′ 왜 내가 해?
ㄴ. 모임은 *다시/또 무슨 모임.
ㄴ′. 모임은 무슨 모임.

(7ㄱ) 는 '또'를 통해 화자가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이미 해본 적이 있는 자신이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다시 한 번 자기가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한 경악하는 감정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다시'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또한 (7ㄱ′)에서도 화자가 자기가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혹을 표현하였으나, 왜 또 한 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의 감정 표현이 결여한다. (7ㄴ)에서는 '또'를 통해 모임을 두 번 기술 하면서 '또'를 통해 '모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경우 '다시'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또한 (7ㄴ′)에서는 어떤 모임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였으나,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또'는 손남익(2014), 유우흠(20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부정]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시', '또'의 공통적 의미자질과 시차적 의미자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0>와 같다.

<표Ⅱ-10> '다시', '또'의 의미자질

	다시	또
공통적 의미자질	[+반복]	
시차적 의미자질	[+수정], [+계속], [+회복]	[+연결], [+추측/의문], [+부정], [+추가]

2.3.1.2 '다시', '또'의 화용적 특성

다음으로 사전 예문과 SJ-RIKS 코퍼스 확장판 형태분석말뭉치, 모두의 말뭉치 등을 참조하여 만든 용례를 '다시', '또'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8) 가: 잘 안 들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나: 크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모두의 말뭉치
(9) 가: 왜냐하면 일제시대 만들어진 자료이긴 하지만……
나: 오영교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두의 말뭉치

예문(8)의 화자'가'는 '다시'를 사용하여 주의사항, 퀴즈 등 자세히 들어야 하는 내용을 잘 들리지 않아 부드러운 태도로 한 번 더 말씀해주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화자는 청자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하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드러내고 있다. 예문(9)는 오영교 선생님이 주제를 벗어나는 얘기를 언급하자 사회자가 '다시'를 첨부하여 완곡하게 주제 이탈 얘기는 그만하고 주제를 염두에 놓아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가 함축되어 있다. 화자나는 화자가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조경아(2003:13)에서는 요청 행위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완곡하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다시'를 사용할 때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하고 있으나 공손이 내포되어 있는 '요청'의 발화 의도를 드러나고 있음을 판단한다.

(10) 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그렇게 말해 놓고 벌써 몇 번째야? -『한국어기초사전』

(11)가: ...(생략)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정치 자금으로부터 정말로 떳떳하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생략)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선 안돼요. -코퍼스 확장판

예문(10) 은 잘못을 하였다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고, 화자'나'는 '다시는' 형식으로 향후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은 결심을 표현하고 잘못을 뉘우치려는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체면을 지킴으로써 청자에게 사과하려는 미안하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예문(11)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포함되며 '다시는'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표현하는 상황이다. 즉, 화자는 '다시는'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반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자신의 적극적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가 함축되어 있다. 또 박용익(2010)에서는 사과표시는 화자가 청자에게 한 행동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시는'은 화자가 자신의 적극적 체면을 지키며 청자에게 손해를 입힐 어떤 잘못된 경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려는 반성 또는 사죄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과'의 발화 의도를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12) 그렇다면 영어의 적성 검사, 다시 말하면 애티튜드 테스트를 적성 검사로 번역하는 것부터가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모두의 말뭉치
(13)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형자는 옷값을, 지불을 요청한 바도 없고, 지불 요청 받은 적도 없고 지불한 바도 없다. -모두의 말뭉치

예문 (12)는 적성 검사라고 번역하는 사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다시 말하면'으로 초점을 다시 잡아 앞 절에 언급하던 상황에 대한 청자의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말을 풀어서 진술하는 의도도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예문(13)에서 이형자가 옷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나 기대하는 면이 드러났다. 환언하자면, 화자는 '다시 말하면'을 사용함으로써 앞 절 언급하던 사실이나 사물에 초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말을 풀어서 다시 전달하며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면이 많다. 즉, 자신의 입장이 청자에게 인정받은 느낌이 포함되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지키고 있다. 또, 김미령(2017: 44)에서는 '진술화행'은 화자가 자신이 인지한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시 말해서'를 사용'할 때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청자의 부담을 줄여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지키려는 '진술'의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4) 가: 부장님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는데?
나: 노래는 또 무슨 노래야? -『한국어기초사전』

(14)는 화자가 전자가 말씀하는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의문문이지만 부정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형 발화 행위이다. 즉, 화자나는 '또'를 사용하여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부장님의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고 자신의 '짜증/분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노래'를 두 번 반복하여 발화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화용적 특성은 '또'의 [+부정] 의미자질과 명시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문은 유우흠(2022)의 견해[15]를 바탕으로 '또'는 [+부정]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화용적 특성을 함께 지닌다고 판단한다. 『표준』과 『우리말』의 뜻풀이에서 '또'의 [+부정] 의미자질을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또'는 부정의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불만토로'의 발화 의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5) 유우흠(2022)에서는 '또'는 담화기능 측면에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5) 가: 글쎄, 내가 직접 결정에 참여한 게 아니니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 하지만 더욱 수상쩍은 건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는 거야.

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모두의 말뭉치

(16)가: 갑자기 당신이 무서워지네요.

나: 그건 또 무슨 생뚱맞은 말씀?

가: 글쎄요.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두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태도가 새삼스럽게 서먹해 보여요. -모두의 말뭉치

예문(15)에서 화자'나'는 화자'가'가 말씀하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진짜 목적이 수상하다는 언급에 대하여 의외이고, 놀라운 감정을 '또'를 통해 자신의 불쾌함을 강조하고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16)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나'는 화자'가'가 '나'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진술에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에 대한 놀라운 감정을 '또'를 통해 강화하고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또 유우흠(2022)에서는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화용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놀람'의 발화 의도를 드러날 때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불쾌감 또는 경아감을 강화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추출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시', '또'의 화용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1>와 같다.

<표Ⅱ-11> '다시', '또'의 화용적 특성

	화행 유형	발화수반행위 (발화의도)	감정	공손성 이론
다시	지시화행	요청	공손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정표화행	사과	뉘우침	화자 적극적 체면 위협
	확언화행	진술	기대감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또	정표화행	불만토로	짜증/분노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정표화행	놀람	경아감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2.3.2 '가끔', '때때로', '종종'의 의미·화용적 특성

2.3.2.1 '가끔', '때때로', '종종'의 의미적 특성

'가끔', '때때로', 종종'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표준』, 『연세』, 『고려』, 『우리말』에 기재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Ⅱ-12> '가끔', '때때로', '종종'의 사전 의미 기술

사전	가끔	때때로	종종
『표준』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경우에 따라서 가끔.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연세』	(비슷한 일이 거듭되곤 하는 때와 때의) 사이가 얼마쯤 떨어지게.	때에 따라서. 가끔.	가끔, 또는 때때로.
『고려』	시간이나 공간의 간격이 조금씩 뜨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따금씩.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간격이 조금씩 뜨게.
『우리말』	때와 때의 사이가 불규칙적으로 얼마쯤 덜어지게.	때에 따라서 가끔.	가끔. 또는 때때로.

<표Ⅱ-11>에 열거하였듯이 '가끔'에 대하여 『표준』, 『고려』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다'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연세』,『우리말』에서는 '때와 때의 사이가 얼마쯤씩 있다'로 기술하였다. 의미 기술에서 각 사전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요약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간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때로'의 경우는 네 사전에서의 기술양상을 공통적으로 '경우에 따라 가끔'이라 요약할 수 있다. 시간적 가끔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공간적 가끔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기

술하지 않았다. '종종'에 대하여 『표준』, 『고려』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다'는 것으로 기술하였다.『연세』,『우리말』에서는 '가끔, 때때로'로 해석하였다. 종합하여 보자면, '가끔', '때때로', '종종'은 의미 층위에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양상 층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은 먼저 '가끔', '때때로', '가끔'의 사전 의미로 의미자질을 살펴보도록 한다.

(17) ㄱ.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이미 가끔/때때로/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③과 ④는 3~4년 안에, ⑤는 5~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혔다. -코퍼스 확장판

ㄴ. 물론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통일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로써도 가끔/때때로/종종 가르쳐야 하겠지요. -코포스 확장판

예문(17ㄱ)에서 ①과 ②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며, 나머지 ③,④,⑤는 3~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이다. 즉, '가끔', '때때로', '가끔'은 ①과 ②가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17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시간적 층위에서 얼마쯤씩 가르쳐야 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서술이다. 따라서 두 예문에서 세 중의 어느 반복상 부사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손남익(2014)에서 '가끔', '종종'은 [+시간]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제시하였고, 강현화(2001)에서 '때때로'는 [+시간적]의 의미성분을 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삼자는 공통적으로 [+시간] 16)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다.

(18) ㄱ. 주말에는 좀 흐린 가운데 가끔/*때때로/종종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코퍼스 확장판

16) 본고는 Ⅲ장의 이해 양상 분석을 통해 학습자는 '가끔, 때때로, 종종'을 이해하는 데 빈도 층위에 대한 접근이 위주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시간부사의 특성인 [+시간]의 의미자질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다.

ㄴ.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가끔/*때때로/종종 있다. - 『부사사전』

예문(18ㄱ)은 흐린 곳 가운데 어떤 곳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복상 시간부사가 '시간적 간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반복상 시간부사는 '공간적 간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여러 흐린 곳 가운데 공간적 간격이 있는 몇 개 곳이 비가 온다는 것이다. 이때는 '가끔', '때때로', '종종'이 모두 적절하지는 않다. '때때로'는 '때, 경우, 시간에 따라 간격을 두다'라는 의미이므로 공간적인 간격을 표현하는 데 자연스럽지 않다. (18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간격을 나타나며 '때때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손남익(2014)에서 '가끔', '종종'은 [+공간]의 의미성분을 지닌다는 것을 지적하고, 강현화(2001)에서 '때때로'는 [-공간적]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가끔'과 '종종'은 [+공간]적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없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 ㄱ. 가끔/때때로/종종 한문 글자를 섞어 영재의 지식으로선 알아볼 수 없는 대목도 없지 않았지만, 대개는 의미를 뜯어 알 수 있었다. -코퍼스 확장판

ㄴ.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가끔/때때로/종종 일본말을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하였다. - 코퍼스 확장판

예문(19ㄱ)는 영재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경우라서 한문 글자가 섞여 있는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끔', '때때로', '종종'이 나타나는 간격은 시간적, 공간적이 아닌 서면에 쓰여 있는 문장에서의 간격이다. 문장은 인간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면에 쓰여 있더라도 공간적 간격이라 정의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 (19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화 내용에 다른 언어를 띄엄

띄엄 섞어 있는 것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가끔', '때때로', '종종'이 나타나는 간격은 (19ㄱ)처럼 공간적 간격이라 정의하기 힘든 경우이다. 더불어 손남익(2014)에서는 '가끔, 때때로, 가끔'은 [+간격]의 의미자질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끔', '때때로', '종종'은 공통적으로 시간도, 공간의 간격이 아닌 단순히 [+간격]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ㄱ. 육년이 넘게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래요, 가끔/때때로/종종 그가 낯설어요. -코퍼스 확장판

ㄴ. 저는 기다리고, 빌고, 믿고, 그리고 가끔/때때로/종종 묻겠어요. -코퍼스 확장판

예문(20ㄱ)는 화자가 육년을 함께 지났는데 그에 대하여 낯선 느낌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화자가 그에 대한 낯선 느낌은 시간적 간격에 따라 규칙 없이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상황에 따라 낯선 느낌이 스스로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가끔', '때때로', '종종'를 살펴보면, 세 반복상 시간부사는 모두 시간적 간격에 따라 느끼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만 '경우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낯선 느낌을 느끼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상황에 따라 낯선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20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부사는 모두 시간적 간격이 있게 불규칙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으나, '때때로'만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이며 의도 있게 물어보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때때로'는 손남익(2014), 강현화(2001)[1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황]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가끔', '때때로', '종종'의 공통적 의미자질과 시차적 의미자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3>와 같다.

17) 강현화(2001)에서는 '때때로'는 [+의도성]의 의미 성분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상황]으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지시하는 대상은 같다.

<표Ⅱ-13> '가끔', '때때로', '종종'의 의미자질

	가끔	때때로	종종
공통적 의미자질	[+시간],[+간격]		
시차적 의미자질	[+공간]	[+상황]	[+공간]

2.3.2.2 '가끔', '때때로', '종종'의 화용적 특성

다음으로 SJ-RIKS 코퍼스 확장판 형태분석말뭉치, 모두의 말뭉치 등을 통해 '가끔', '때때로', '종종'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21) 가: 영주야, 가끔 우리 엄마를 찾아봐 주어 응? 고맙다 이거…….
나: 그럼요. -코퍼스 확장판

(22) 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가끔 먹어야 맛있지.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야.
나: 맞아. 나도 고기는 좋아하는데 매일은 못 먹겠더라. -『한국어 기초사전』

예문(21)은 는 '가'가 '나'에게 시간이 괜찮을 때 어머니를 보러 오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다. '가'는 '나'에게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기 위하여 '가끔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가'는 화자'나'에게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밝히는 데 의문문으로 발화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완곡하게 내놓기 위하여 '가끔'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자'가'는 '가끔'을 사용하여 자신이 화자'나'가 찾아왔으면 하는 기대감과 한번도 찾아봐 주지 않은 걱정감을 완곡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청자에게 많이 찾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소극적 체면을 세워주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예문(2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Tsui(1994)에서는 '제안 화행'은 청자에게 강제성이 없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제안하

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강현화 2017; 재인용). 이에 따라 본고는 화자가 '가끔'은 화자의 '제안'의 발화 의도를 드러나는데 화자의 기대감 또는 걱정이 내포되는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세우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가: 괜찮으세요?

나: 네. 괜찮아요. 가끔 현기증이 나서, 그래 그랬을 거요. -코퍼스 확장판

(24) 가: 가끔씩 얄밉죠.

나: 왜요?

가: 자기 것이 점점 너무 강해지는 거 같으니까 어린 나이에. -모두의 말뭉치

예문(23)는 '가'가 '나'를 걱정하여 괜찮은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나'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또는 크게 불편하지만 상대방의 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태를 괜찮게 보이려고 '가끔'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환언하자면 현기증은 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상대방이 적게 걱정하도록 위로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문(24)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가'는 자기가 어린 나이에 너무 강해지는 상태를 얄미워하지만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은 정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가끔씩'으로 답장하였다. 더불어 김선지(2007)에서는 위로 화행은 화자가 청자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려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예문(29)와 예문(24)과 같이 '가끔'은 화자가 상대방의 심정을 배려하여 어떤 특정 상태를 괜찮은 정도로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여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세우고 부담을 줄이려는 '위로'의 발화 의도가 드러난다고 판단한다.

(25) 가: 잘 나갈 때 삼사천 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잘 안 나갈 때 백 명이 안 될 때도 있죠.

나: 아~ 그렇구나.

가: 그러니까 이게 좀 때때로 달라요. -모두의 말뭉치

(26) 가: 그런 오해들 때때로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 왜요?

가: 둘이 정확히 섭외가 돼야 나옵니다. -모두의 말뭉치

예문(25)는 장사가 잘될 때와 안 될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화자'가'는 화자'나'에게 장사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때때로'를 사용하였다. 환언하자면, 화자 '가'는 이런 경우로 인한 변화는 화자 '나'의 주목이 필요함의 판단을 공손하게 드러나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지키고 화자'나'의 관심을 기울이려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예문 (26)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이 상황을 충분히 눈에 띄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때때로'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판단이 청자의 인정을 받고 싶으나 강요하지 않은 것으므로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이에 따라 화자는 '때때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는 판단을 공손하게 표현하고 소극적인 체면을 세우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표준』에 따르면 주의는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때때로'는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기울이려는 판단을 공손하게 표현하여 소극적인 체면을 지키려는 효과가 있음을 판단한다.

(27) 가: 사장님께서 인테리어를 면밀히 관찰하고 품질 높게 완성하셨네요.

나: 그래도 연극의 막을 못 올리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 -코퍼스 확장판

(28) 가: 유민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 요샌 통 소식이 없네.

나: 그러게, 나도 요새 만난 적도 없고. -『한국어기초사전』용례

변형

(27)에서는 화자'나'가 인테리어를 면밀히 완성하였지만, 어울리지 않은 상황(연극의 막이 올리지 못 한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하여 '종종'을 사용하였다. 환언하자면, 화자나는 '종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의 품질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을 나타내고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손상하게 표현하였다. (28)에서도 '종종'을 통해 요즘에는 유민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듣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고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 박용익(2010)에서는 반증 화행은 화자가 앞서 진술 내용에 대한 거부적 반응을 표명하고 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종종'은 앞뒤 차이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예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발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을 때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판단한다.

(29) 가: 전동 휠체어 사고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나: 네. 요즘 최근에 지하철 역 같은 곳을 가보면 턱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겠죠. -모두의 말뭉치

(30) 가: 실제로는 직업을 속이고 결혼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나: 그렇습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본인의 직업 경력 학력을 속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두의 말뭉치

예문(29)에서 화자'가'는 '종종'을 통해 휠체어 사고가 예상되지 못하게 생각 밖으로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예문(30)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는 자신의 주장인 직업을 속이고 결혼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적

극적 체면을 지키고 있다. 또한 박용익(2010)에서는 '주장'은 상대방에게 명제 내용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임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종종'은 예상치 않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 사용할 때 화자의 확신을 강하게 표현하여 적극적 체면을 지키려는 '주장'의 발화 의도가 드러난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가끔', '때때로', '종종'의 화용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4>와 같다.

<표Ⅱ-14> '가끔', '때때로', '종종'의 화용적 특성

	화행 유형	발화수반행위(발화의 도)	감정	공손성 이론
가끔	지시화행	제안	기대감/걱정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정표화행	위로	괜찮음/낙관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때때로	지시화행	주의	공손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종종	확언화행	반증	아쉬움/궁금함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확언화행	주장	확신	화자 적극적 체면 지킴

2.3.3 '자주', '흔히'의 의미·화용적 특성

2.3.3.1 '자주', '흔히'의 의미적 특성

'자주-흔히'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표준』, 『연세』, 『고려』, 『우리말』에 기재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Ⅱ-15> '자주', '흔히'의 사전 의미 기술

사전	자주	흔히
『표준』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연세』	(1)같은 일을 잇달아, 잦게.	일상적으로 자주. 보통.

	(2)짧은 동안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고려』	짧은 동안에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또는 잇달아 잦게.	일상적으로 보고 듣거나 구할 수 있도록 잦거나 많게.
『우리말』	같은 일을 잇달아 잦게.	(1)귀하거나 드물지 않고 많이. (2)보통으로. 특별하지 않고.

<표Ⅱ-18>에 열거하였듯이 '자주'에 대하여 네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일을 잇달아 잦게'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연세』, 『고려』에서는 '짧은 동안에 여러 번 되풀이하다'를 추가하고 있다. '흔히'에 대하여서는 네 사전에서 기술하는 양상이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 귀하지 않는 보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자의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면, 최경아(2007)에서 언급한 '여러 번 잇달아'라는 공통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즉, 양자는 모두 '일상적으로 잦게', '자주'라는 의미를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양자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자주', '흔히'의 의미자질을 살펴보겠다.

(31) ㄱ. 이런 광경은 서울 시내 곳곳에 교차로에서 아주 자주/흔히 볼 수 있다. -코퍼스 확장판

ㄴ. 그것은 외교 교섭에서 자주/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 코퍼스 확장판

예문(31ㄱ)는 이런 광경은 서울 교차로에서 빈도 높게, 잦게, 여러 번 일어나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문(31ㄴ)는 '그것'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또, 손남익(2014)에서는 '자주', '흔히'는 [+빈도], 권혜진(2008)에서는 '자주'는 [+고빈도]의 의미자질을 지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부사는 모두 같은 [+빈도]의 의미 성분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빈도]는 같은 행위가 되풀이하는 횟수에 그치는 것이라 되풀이하는 정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구체화한 [+고빈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주'와 '흔히'는 빈도가 낮지 않음을 [+고빈도]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32) ㄱ. 그는 요즘 들어 몸이 자주/*흔히 아프다. -코퍼스 확장판

ㄴ. 그동안 자주/*흔히 왕래하던 사이였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었다. -코퍼스 확장판

(32ㄱ)는 한정되어 있는 특정 시간에 몸이 여러 번 잦게 아프다는 서술이다. '자주'는 짧은 동안에 몸이 아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시간 한정 없이 출현 횟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흔히'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비문이 된다. 또한 『연세』의 뜻풀이에 따라 '자주'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되풀이'하는 의미를 나타날 수 있으나 '흔히'는 그렇지 않아 비문이 되기 쉽다. 더불어 최옥춘(2013), 이정정(2018)에서는 '자주'는 [+지속성]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제시하였고, 최경아(2007)에서 '자주'는 여러 번 되풀이되는 습관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자주'는 어떤 일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즉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일어나서 습관이나 버릇이 되는 [+습관/버릇]의 의미자질을 지닌다는 것을 추출할 수 있다. (32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를 사용함으로써 왕래하였던 경우가 그동안 여러 번 일어나 습관으로 생각했는데 처음 정식으로 초대한 것을 표현할 수 있으나, '흔히'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비문이 된다.

(33)ㄱ. 세상 사람들은 *자주/흔히 파격(破格)을 추구하는 자를 예외자나 비정상인쯤으로 취급해버린다. -코퍼스 확장판

ㄴ. *자주/흔히 이럴 때 찾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다. -코퍼스 확장판

(33ㄱ)는 일반적으로 파격을 추구하는 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제시하였다. 환언하자면, 사람들이 파격을 추구하는 자를 보편적이지 않다고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이런 사람을 예외자나 비정상인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해당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흔히'를 사용하면, 시간적 반복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예문(33ㄴ)도 같다. '흔히'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것이 보통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주'는 그렇지 않다. 이에 근거하여 '흔히'는 손남익(20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접촉]의 의미자질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의 논의에 따라 '자주', '흔히'의 공통적 의미자질과 시차적 의미자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6>와 같다.

<표Ⅱ-16> '자주', '흔히'의 의미자질

	자주	흔히
공통적 의미자질	[+고빈도]	
시차적 의미자질	[+습관/버릇]	[+접촉]

2.3.3.2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

다음으로 사전에서의 예문과 SJ-RIKS 코퍼스 확장판 형태분석말뭉치, 모두의 말뭉치 등을 통해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34)가: 참, 현부 너 요즘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니?
나: 아, 그게…… -코퍼스 확장판
(35)가: 여긴 자주 오니?
나: 그럴 틈이 있어야지. -코퍼스 확장판
(36)가: 요즘도 자주 가슈? -코퍼스 확장판
나: 매일 가죠. 혜초 여사 가게가 거기니까. -코퍼스 확장판

예문(34)에서 화자 '가'는 화자 '나'가 어머니와 통화하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화자 '가'는 '자주'를 사용하여 화자 '나'가 어머니와 많이 통화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사실은 자기의 추측과 같은지에 대한 궁금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자에게 그런지를 검증하는 의도가 포함하여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 예문(35), (36)에서도 화자 '가'가 '자주'를 통해 화자 '나'가 여기 많이 오는 것으로 추측하여 질문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주'는 화자가 청자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질문할 때 사용하여 화자의 궁금함을 강하게 내포되고 청자에게 자기의 추측과 일치하는지를 말해 달라는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37) 가: 병문안, 자주 갈 게!
나: 오지마. -코퍼스 확장판 용례 변형
(38) 가: 집 알았으면 자주 놀러와.
나: 너두 놀러 오렴. -코퍼스 확장판

예문(37)에서 화자 '가'는 '자주'를 사용하여 병문안을 자주 가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청자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인 체면을 지키고 있다. 또는 화자 '나'의 불쾌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자 '가'는 병문안을 자주 가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여 쌍방 선호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문 (38)는 화자 '나'는 화자 '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후, 화자 '가'는 화자 '나'가 시간 괜찮을 때 자기 집에 놀러올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주'를 사용하여 자신의 '좋아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며 적극적 체면을 지키기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화자의 적극적인 의도나 결심을 표현하는 상황에 '자주'를 사용하여 화자의 '자신감'이나 '좋아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적극적 체면을 지키려는 '의지 표명'의 발화 의도가 드러난다.

(39) 가: 그 사람 부친하고 내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한동네서 자랐거든.
나: 그거야 뭐 흔히 있는 일 아닌가? -코퍼스 확장판
(40) 가: 일부러 또 출마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나: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코퍼스 확장판

예문(39)에서는 그 사람의 부친하고 화자'가'의 부친이 한동네서 자랐다는 사실이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언하자면, 화자 '가'는 이런 일이 희한하다고 생각하나, 화자 '나'는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임을 판단하며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이는 상황이다. 예문(40)에서도 화자'나'는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의치 않음의 심리 상태를 '흔히'를 통해 부드럽게 표현하고 청자의 소극적 체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흔히'는 보기 드물 정도로 희한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여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나 완화하려는 '인정'의 발화 의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7>와 같다.

<표Ⅱ-17>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

	화행 유형	발화수반행위(발화의도)	감정	공손성 이론
자주	확언화행	추측	궁금함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언약화행	의지표명	자신감/좋아함	화자 적극적 체면 지킴
흔히	확언화행	인정	-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3. 교육현황 고찰

본 절에서는 실제 교육 현황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습자가 널리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 순서와 제시 양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서울대　한국어』,『연세한국어』,『新標准韓國語』,『標准韓國語』[18]를 분석교재로 선정한다. 이어서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 홍종명·이준호·안정호(2020)의 교육 내용에서의 어휘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반복상 시간부사를 다음 내용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시된 반복상 시간부사의 수준이 학습자에게 적절한지를 고찰하기 위해 네 교재에서의 제시 순서를 살펴본다.

둘째, 반복상 시간부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의미·화용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는지, 또 이를 익히게 하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1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 순서

<표Ⅱ-18> 각 교재에서의 반복상 시간부사 제시 순서

반복상 시간부사	『서울대』	『연세』	『新標准』	『標准』
다시	1B-15과	1-4과	초급2-2과	1-25과
또	1A-8과	2-1과	초급2-10과	1-2과
가끔	2A-1과	1-3과	초급2-10과	2-7과
때때로	5A-부록	3-10과	-	-
종종	-	5-4과	고급1-5과	-

18) 보일평(2017), 이의걸(2018)에서는 『서울대 한국어』, 『연세한국어』,『標准韓國語』를 분석 교재로 삼았고, 왕산산(2019), 진유잉(2022)에서는 『新標准韓國語』를 분석 교재로 삼았다. 이하 『서울대 한국어』를 『서울대』로,『연세한국어』를 『연세』로,『新標准韓國語』를 『新標准』로, 『標准韓國語』를 『標准』로 표시한다.

자주	1A-8과	1-3과	초급2-9과	1-15과
흔히	4A-9과	5-6과	중급1-8과	3-13과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시', '또', '가끔', '자주'는 모두 초급에서 제시하였다. '때때로'는 『서울대』에서는 고급의 부록부분에 제시되어 있고, 『연세』에서는 중급에 제시되어 있다. 또,『新標准』, 『標准』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다양한 제시 양상이 나타났다. '종종', '흔히'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제시 순서로 나타났다. '종종'은 주로 고급에 제시되어 있지만, 『서울대』, 『標准』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흔히'는 중·고급에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한국어 교재에서 초급으로 취급한 어휘는 일치되어 있는 등급으로 제시되었지만, 중급 어휘부터는 제시순서가 다양해지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을 통해 비교적 통일된 순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2 반복상 시간부사의 제시 양상

각 교재에서 제시된 반복상 시간부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시'에 대하여 『서울대』에서는 이를 교육 항목으로 삼지 않아 별도로 의미 제시나 연습 활동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 특성 층위에서 초급에서는 [+반복], 중급에서는 [+수정], [회복], [+계속]의 의미자질을 제시하였다. 화용적 특성 층위에서 중급에서 '요청', 고급에서 '진술'를 제시하였다.

『연세』에서는 '다시'를 교육 항목으로 삼아 간략하게 의미를 '再, 重新' 제시하였으나 연습 활동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서 의미 특성 층위에서 초급에서 '다시'의 네 가지 의미특성을 모두 제시하였다. 화용적 층위에서 초급에서는 '사과'와 '요청'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중급에서는 '진술'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新標准』,『標准』에서는 '다시'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여 의미까지 제시하였지만 해당하는 연습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미 특성 층위를 살펴보면, [+반복]만 초급에서 제시되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중급이어서야 제시되었다. 화용적 특성 층위에서 『新標准』은 고급에서, 『標准』은 초급에서 요청의 화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에 대하여 『서울대』에서는 이를 교육 항목으로 삼아 의미 제시에만 그치고 해당 연습 활동은 없었다. 의미 특성 층위에서는 중급에서 [+부정]의 의미 특성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초급에서 제시되었다. 화용 층위에서는 중급에서 '분만토로'의 화용적 특성이 제시되었다.

『연세』에서는 '또'를 교육 항목으로 삼아 의미 제시에만 그치고 해당 연습 활동은 없었다. 의미 특성 층위에서 [+반복], [+추가], [+연결]은 초급, [+부정]은 중급, [+의문/추측]은 고급에서 제시되었다. 화용적 특성 층위에서 예문(3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만토로'가 중급에서 제시되었다.

『新標准』,『標准』두 교재의 '또'의 제시 양상이 비슷하므로 제시되어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두 교재에서는 '또'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여 의미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연습 활동은 없었다. 의미 특성 층위에서는 『新標准』은 [+추가], [+반복], [+연결]을 모두 초급에서 제시되었고 [+의문/추측], [+부정]을 뚜렷하게 제시한 텍스트는 부재한 상황이다. 『標准』은 이와 살짝 다르게 초급에서 [+반복], [+연결], 중급에서 [+추가]를 제시하였다. 화용적 특성 층위으로 살펴볼 때, 두 교재는 모두 중급에서 '불만토로'을 제시하였고, 『標准』은 고급에서 '놀람'을 제시하였다.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가끔'의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대』, 『연세』, 『新標准』, 『標准』에서는 모두 '가끔'을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서울대』와 『연세』에서는 '자주'와 함께 제시하여 잦기 횟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자 실제 생활에 알맞은 부사를 선정하는 연습 활동까지 마련하였다. 하지만 본문이 다루고 싶은 '가끔'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며, '때때로', '종종'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의미 특성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에서는 초급에서 [+시간], [+간격]을 제시하였다. 『연세』에서는 초급에서 [+시간], [+간격], 중급에서 [+공간]을 제시하였다. 『新標准』에서는 초급에서 '가끔'의 [+시간], 중급에서 [+간격]의 의미자질이 제시되었다. 『標准』에서는 중급에서 [+시간], 고급에서 [+간격]의 의미자질을 제시하였다. 화용적 특성 층위로 살펴볼 때, 『서울대』, 『新標准』에서는 중급에서 '위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세』에서는 '위로', '제안'의 특성을 모두 중급에서 제시되었다. 『標准』에서는 화용적 특성은 모두 미흡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때때로'가 각 교재에서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대』, 『연세』에서만 제시되었다. 먼저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5B』 4과의 보충자료에서 제시되었다. 보충자료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에서는 '때때로'를 교육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세』에서는 『연세 3』 10과 과제부분에서 제시하였으며 [+상황]의 의미자질을 보여주었다. 『서울대』와 비해 어느 정도 교육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종'이 각 교재에서의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연세』, 『新標准』에서만 제시되었자. 먼저 『연세』에서는 고급 단계에서 '종종'의 [+시간], [+간격]의 의미자질을 제시하였으나, [+공간]의 의미자질에 대하여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서는 용례가 적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新標准』에서는 역시 고급 단계에서 '종종'의 [+시간]의 의미자질을 제시하였으나, 화용적 특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각 교재에서 '자주'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네 교재에서 모두 '자주'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여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에서는 '가끔'과 함께 제시하여 관련 연습활동을 통해 구분하도록 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문이 다루고자 하고 싶은 '흔히'와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新標准』와 『標准』에서는 연습활동이 없었다. 이어서 의미 특성을 살펴보면, 『新標准』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교재에서 '자주'의 [+고빈도], [+습관/버릇]을 모두 초급에서 제시되었고, 『新標准』에서는 초급에서 '자주'의 [+고빈도], 중급에서 [+습관]을 제시하였다. 화용적 특성 층위로 살펴보면, 『서울대』, 『新標准』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추측', '의지표명'을 모두 제시하였다.『연세』에서는 중급에서 '추측', 고급에서 '인정'을 제시하였다. 『標准』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흔히'가 각 교재에서 분포된 양상을 살펴보자면, 네 교재에서 모두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어서 의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에서는 중급에서 [+고빈도], [+접촉]의 의미자질이 모두 제시되었으나, 『연세』, 『新標准』, 『標准』에서는 [+접촉]의 의미자질만 제시되었다. 화용적 특성 층위로 살펴보면, 『서울대』, 『연세』에서는 고급에서 '인정'이 제시되었으나, 『新標准』,『標准』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재 제시 양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내용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세히 살피자면,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화용적 특성에 관련된 정보는 많지 않다. 둘째,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그나마 비교적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하는 연습 활동이나 예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셋째,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반영하는 예문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제시하는 데에만 그치는 한계가 지니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4a』 4과의 불만과 관련된 단어에서의 예문은 '또'의 '불만토로'의 화용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으나, 관련 연습의 주요 목적은 '또'의 화용적 특성을 익히는 데 두지 않았다. 또는 『연세6』 1과 2항 과제2와 5과 2항 과제2의 기능 표현 익히기에서 '다시'의 '요청'의 화용적 특성을 드러나고 있는 예

문은 제공되어 있지만 관련 연습 활동은 없었다. 요컨대, 교재에서 화용적 특성을 드러나는 예문은 모두 임의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등의 영역의 텍스트에 찾아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 않아 다양한 연습 활동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이와 같은 화용적 특성을 내재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Ⅲ.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 분석

지금까지 2장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숙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파악한다. 다음 양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인터뷰를 통해 최종 분석 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방법과 내용을 구안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조사 방법 및 절차

1.1 조사 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TOPIK 5~6급)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고급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주로 두 가지이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7개 부사 가운데 '다시', '또', '가끔', '자주'는 초급에서 제시하였지만 나머지 3개는 중·고급에서 나오는 부사이다. 따라서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TOPIK 3~4)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학습하지 않았던 부사가 조사에 포함된다. 둘째로, 예비실험에서의 한국어 중급 학습자 8명과 1차 본조사에서 36명은 초급에서 제시한 부사만 알고 나머지 부사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과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이해 양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0명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 표는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이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중국인 학습(CL)	한국인 모어 화자(KN)
합계		80	30
직업		학생, 직장인, 주부	학생, 직장인,취준생,군인
성별	남	24	8
	여	56	22
학습 기간	1~3년	23	-
	3~5년	27	-
	5년 이상	30	-
한국어 수준		토픽 5급~6급	-

1.2 조사 도구 개발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지, 인터뷰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두 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Ⅲ-2>로 제시할 수 있다.

<표 Ⅲ-2> 조사 도구

조사 도구	구성	측정 내용	문항수
설문지	인적 사항	성별, 직업, 한국어 학습 시간,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 시간,	5
	이해 양상 조사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27
	학습 정보에 대한 만족도	교재 제시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사 교수 내용에 대한 만족도	2
사후 인터뷰	응답 근거에 대한 질문.		-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설계를 살펴보면 크게 인적 사항, 이해 양상, 학습자의 만족도 세 부분으로 나눈다.

우선 인적 사항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성별, 직업, 한국 거주 시간, 한국어 수준 등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부분은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텍스트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바탕으로 암시적 지식보다 '어휘'의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 대한 변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이슬 2020). LIYU(201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숙달도별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대한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슬(2020)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에 대한 변별 능력을 고찰하기 위해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를 사용하여 5개 선택지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방방(202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변별 능력을 고찰하기 위해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를 사용하여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의 다양한 의미 차이를 선택할 때 언어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적절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변별하고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다시-또', '가끔-때때로-종종', '자주-흔히'의 공통적 의미자질 및 시차적 의미자질에 대한 변별 능력을 고찰하도록 문항을 설정하였다. 아래 <Ⅲ-3> 에서 구체적인 출제 표준 및 예시를 살펴볼 수 있다.

<표 III- 3>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테스트 출제 표준 및 예시

반복상 시간부사	고찰 내용	문항 번호
다시-또	공통적 의미자질-[+반복]	7
	'다시'의 시차적 의미자질: [+계속], [+수정], [+회복]	8,9,11
	'또'의 시차적 의미자질-[+연결], [+추가], [+추측/+의문]	6, 12, 13
가끔-때때로-종종	공통적 의미자질-[+시간], [+간격]	18,20
	'가끔', '종종'의 공통적 의미자질-[+공간]	19
	'때때로'의 시차적 의미자질-[+상황]	21
자주-흔히	공통적 의미자질-[+고빈도]	27
	'자주'의 시차적 의미자질-[+습관/버릇]	28
	'흔히'의 시차적 의미자질-[+접촉]	29
[문항 예시] 27. 괄호안에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것은 외교 교섭에서 (　　) 있는 일이기도 하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이어서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는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는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흔히 사용하는 도구이다. 여기에서는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를 적용하여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다양한 문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제공된 상황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분포는 아래 <표Ⅲ-4>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I- 4>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출제 표준 및 예시

반복상 시간부사	화용적 특성	문항 번호
다시	요청-공손성	10
	진술-체면 위협	14
	사과-체면 위협	17
또	불만토로-체면 위협	15
	놀람-체면 위협	16
가끔	제안-공손성	22
	위로-공손성	23
때때로	주의-공손성	24
종종	주장-체면 위협	25
	반증-체면 위협	26
자주	추측-체면 위협	30
	의지 표명-체면 위협	31
흔히	인정	32
[문항 예시] 10.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정말 고마운데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러지 말고 ( ) 한번 생각해보세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		

요컨대, 이해 양상에 대한 조사는 각 부사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총 27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 인식에 대한 조사는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부사에 충분히 노출되었는지, 이러한 부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만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시간부사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19] 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참여한 학습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참여한 학습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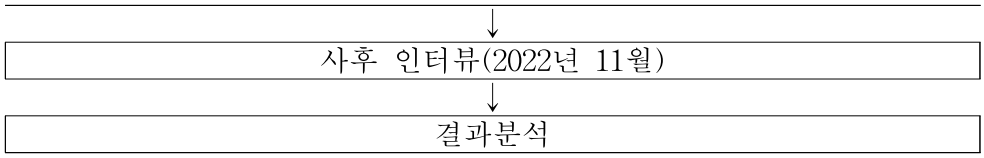
<표 III- 5>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업종	한국어 학습 시간
참여자1	남	직장인	5년 이상
참여자2	여	직장인	1~3년
참여자3	여	직장인	5년 이상
참여자4	여	대학원생	5년 이상
참여자5	남	대학원생	1~3년 이상
참여자6	여	대학원생	1~3년 이상

사후 인터뷰의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에게 해당 부사를 선택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둘째, 해당 부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셋째, 학습 과정에서 배워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실험 과정은 아래 <표Ⅲ-6>와 같다. 먼저 2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고 누락된 문항을 추가하여 137명의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1차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본조사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고 80명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차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30명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대조 실험도 진행하였다. 이어서 6명의 학습자를 선정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III-6> 조사 절차



2. 조사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2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층위와 화용적 층위에 따라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험 결과와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며 그 원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수집된 학습자의 자료에 대하여 의미·화용적 특성 별로 두 집단이 나타내는 정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Fisher의 정확 검정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 검증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차 분석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의 대체 방법이다. 기대빈수가 5이하인 셀이 많으면 카이제곱 검정보다 Fisher의 정확 검정을 통해 분석한 통계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Fisher의 정확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이 드러나는 정답률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20) 예비조사를 통해 '가끔, 때때로, 종종'의 특성을 살펴보는 문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모두의 말뭉치에서 다시 선정하여 총 5명의 모어 화자와 논의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1차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21) 1차 본조사에서 중급 학습자는 '때때로, 종종'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연구 초기에 '다시'의 의미 성분을 [+약속성]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반복]의 의미 성분과 같은 부분임을 확인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주로 2차 본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표III-7>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반복상 시간부사의 이해 양상의 문항별 정확 검증 통계 결과

6	p=1.000	15	p=0.186	24	p=0.034
7	p=0.000	16	p=0.018	25	p=1.000
8	p=0.000	17	p=0.027	26	p=0.046
9	p=0.508	18	p=0.028	27	p=0.000
10	p=0.754	19	p=0.000	28	p=0.034
11	p=1.000	20	p=0.009	29	p=0.293
12	p=1.000	21	p=0.001	30	p=0.443
13	p=0.034	22	p=0.503	31	p=0.104
14	p=0.033	23	p=1.000	32	p=0.000

위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 27개 문항에서 유의확률 (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문항은 15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별 각 문항에서 50%이상 하나의 선택항을 집중되어 있는지의 일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모국어 화자 집단은 전체 문항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8개 문항에서 분산하여 선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으로 두 집단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하는 데 드러나는 양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두 집단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집중적으로 하나의 어휘를 선택하는 일관성이 비교적 약하다.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모어 화자의 선택률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2.1. 의미적 특성에 따른 이해 양상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저빈도, 중빈도, 고빈도 유의쌍의 순으로 두 집단의 선택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시, 또'의 관련 문항의 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III-8> '다시', '또'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괄호안에 적절한 부사를 고르세오.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6. 하루 (　　) 하루가 흐른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0% B. 93.75% C. 6.25% D. 0%	A. 0% B. 93.33% C. 6.67% D. 0%
7. 똑같은 사고가 (　　) 났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12.5% B. 53.75% C. 33.75% D. 0%	A. 6.67% B. 13.33% C. 80% D. 0%
8. 그는 (　　)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32.5% B. 41.25% C. 26.25% D. 0%	A. 80% B. 6.67% C. 13.33% D. 0%
9. 운동을 통해 건강이 ( ) 좋아졌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86.25% B. 8.75% C. 5% D. 0%	A. 93.33% B. 0% C. 6.67% D. 0%
11. 너 과제 (　) 작성해야 해.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97.5% B. 2.5% C. 0% D. 0%	A. 100% B. 0% C. 0% D. 0%

12. 어제 먹은 오이소박이가 참 맛있던데 ( ) 없어?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12.5% B. 87.5% C. 0% D. 0%	A. 10% B. 90% C. 0% D. 0%
13. 이 옷이 나한테는 너무 작지만 유민이라면 ( ) 맞을지도 모르겠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A. 25% B. 75% C. 0% D. 0%	A. 6.67% B. 93.33 C. 0% D. 0%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 문항 6은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앞 뒤 문장을 이어주는 '또'의 [+연결]의 의미자질을 체현할 수 있다. '다시'도 선택하여 되풀이하다는 [+반복]을 실현할 수 있으나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픈 느낌이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또'의 사전의 기술에 따라 단어를 이어 줄 때 쓰는 상황이 더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두 집단의 선택 양상을 보면 거의 차이 없이 모두 '또'가 1위 선택이며 90%이상의 비율으로 나타났다. 또 정확 검증 결과와 결합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또'의 [+연결]의 의미자질을 사용하는 데 거의 한국인만큼 활용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항 9, 문항 11, 문항 12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 네 문항에서 두 집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인 학습자가 이에 대한 능숙도는 거의 한국어 모어 화자만큼 도달할 수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래에서 인터뷰 내용과 결합하여 다루도록 한다.

문항 7은 '다시'와 '또'의 공통 의미 특성 [+반복]이 서로 대체가 가능한 문항이다. 이러한 유의 관계를 입증하듯 80%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두 부사는 치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는 '또'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와 '또'의 공통 의미 특성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8은 하던 것이 중단되어 이어서 계속하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 [+계속]의 의미자질을 지닌 ‘다시’가 적절하다. 이를 증명하듯 모어화자의 선택은 현저한 경향성을 보이게 80%의 높은 비율로 ‘다시’를 사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면 모어 화자와 매우 다르게 일관성 대신 분산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모어 화자에 비해 ‘다시’보다 ‘또’에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와 ‘또’의 기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어느 상황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문항 13은 이 옷은 자기한테는 맞지 않지만 유민이라면 혹시라도 맞을 수 있겠다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또’만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또’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택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에서는 ‘또’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모어 화자 집단과 비해 작지 않은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또'의 [+추측/의문] 의미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다시’와 ‘또’의 일부 인터뷰 내용을 살피도록 한다.

연구자: 6번, 11번의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참여자5: 6번에서는 문맥이 자연스러우면 '또'로 연결해야 되고, 11번에서는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7번, 8번에서 모두 '또'를 선택했네요. 참여자2: 7번에서는 '똑같은'이 있어서 '또'가 더 적절해 보였고, 8번에서는 딱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참여자3: 소극적,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8번에서 왜 '다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6: 이 문장이 그냥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느낌이 들고, 또 소설에 나오는 문어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12번에서 왜 '다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3: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말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없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이 없어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13번에서 왜 '또'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 실은 저는 '아마도'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도'가 없으니 '또'가 좀 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참여자2/6: 그냥 어감으로 선택했어요. 참여자3/4: '또는'이 혹시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는'이 없어서 '또'를 골랐어요.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와 '또'에 대한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다시'의 [+수정], [+회복], '또'의 [+연결], [+추가]에 대하여 수업 과정에서 습득해본 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노출, 직관 또는 어감으로 인해 이를 쉬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습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전이(transfer)인 유용(facilitation)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환언하자면, 학습자가 쉬운 내용으로 인식하는 '다시'와 '또'의 특성은 중국어에서 일대일 대응 또는 비슷한 내용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韓中辭典』에서 '다시'는 중국어의 '再次, 重新'와 대응될 수 있는데 이 어휘는 중국어에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다',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또'의 경우 『韓中辭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又'와 대응되는데 '又'는 연결을 표현하는 연속, '쌓이다'를 표현하는 누적의 용도가 있다(呂淑湘 2002:490).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 '또'의 공통 의미 성분 [+반복]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의 사용빈도와 의미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 따르면 '또'의 사용빈도는 '다시'보다 높고, 『서울대 한국어』, 『標准韓國語』에서 '또'가 '다시'보다 먼저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신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유의어는 모두 [+반복]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항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또'의 대한 수용성이 더 높은 양상

이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다시'의 [+계속]의 의미자질과 '또'의 [+추측]의 의미자질에 대해 모두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직관에 따라 언뜻 보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맥이라도 문항 8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의 [+계속]의 의미자질이 더 적절함을 쉽게 변별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이를 변별하지 못하고 '또'가 어울리는 것에 더 익숙하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다시','또'는 모두 '再', '又'로 대응할 수 있고, '再','又'는 '계속'과 대응하는 '継續' 공기할 때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또'에 대한 수용성이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의 [+추측]의 의미자질을 드러나는 문맥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모어 화자가 거의 선택하지 않은 '다시'가 적절하지 않음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며, '또'는 최선 선택이 아니라 대체 선택임을 보인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또'의 의미에 대한 확신은 과잉일반화 하려는 경향이 상반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표III-9> '가끔', '때때로', '종종'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괄호안에 적절한 선택을 고르세요.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18. 맑은 날 비가 오는 경우가 (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A. 45% B. 11.25% C. 13.75% D. 30%	A. 23.33% B. 16.67% C. 6.67% D. 53.33%
19. 아래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시골길에 가로등이 (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모두 불가능하다.	A. 26.25% B. 42.5% C. 31.25% D. 0%	A. 20% B. 66.67% C. 13.33% D. 0%
20.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또 ( ) 일본말을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하였다.	A. 43.75% B. 10% C. 12.5%	A. 13.33% B. 13.33% C. 10%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D. 33.75%	D. 63.33%
21. 나는 수시 ( ) 화를 내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A. 28.75% B. 27.5% C. 40% D. 3.75%	A. 26.67% B. 63.33% C. 10% D. 0%

문항 18은 '가끔', '때때로', '종종'을 통해 맑은 날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경우는 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오지 않다는 점을 표현하였다. 즉, '가끔', '때때로', '종종'은 [+시간]의 의미자질을 함께 표현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어 화자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다 맞다'를 선택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또 집단별 선택 양상을 살펴볼 때 흩어진 모습이 찾아볼 수 있어 세 부사의 공통 의미 특성인 [+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19는 '때때로'의 [+공간]의 의미특성과 어울리지 않은 문항으로 '가끔'과 '종종'을 사용하여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맥과 어긋나는 '때때로'를 선택해야 올바르다. 이를 입증하듯 66.67%의 모어 화자가 '때때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1위 선택도 '때때로'이었지만 모어 화자와 비율에 비해 작지 않은 차이가 보인다. 또 중국인 학습자의 2위 선택인 '종종'은 모어 화자의 선택 비율이 적은 3위 선택항이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때때로'의 [+공간]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으나, '종종'과의 구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20은 '가끔', '때때로', '종종'의 공통 의미특성 [+간격]을 함께 체현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를 증명하듯 63.33%의 모어 화자는 '다 맞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문항18의 응답 양상과 비슷하게 '가끔'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 때때로, 종종'의 공통 의미 성분보다 '가끔'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및 확신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 21은 ‘때때로’의 「상황」의 의미특성을 체현하는 문항으로서 ‘가끔’과 ‘종종’은 어색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를 설명하듯 63.33%의 모어화자는 ‘때때로’를 선택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분산된 응답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1위 선택은 문항18, 문항 20과 달리 ‘가끔’ 대신 ‘종종’이고, ‘가끔’이 2위로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인 학습자의 1위 선택인 ‘종종’은 모어화자의 선택 양상에서 3위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 ‘때때로’와 ‘종종’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 입증하였다.

연구자: 18번에서 왜 '다 맞다'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 지역마다 비가 오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부사가 다 가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울리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18번에서 왜 '가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2/참여자3: 그냥 어감으로 선택했어요. 나머지 두 개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4/참여자6: 맑은 날이라면 '가끔'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연구자: 19번에서 왜 '가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2/3/4: 실은 이들의 차이는 확실하게 알지 않아요. '가끔'은 그나마 좀 익숙한 어휘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끔'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20번에서 '가끔' 외에 나머지 두 개 부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자1/4: 그냥 어감으로 선택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어색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자: 21번에서 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참여자4/참여자6: '종종'하고 '수시'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참여자3: 이 문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있는, 좀 규칙 있는 습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종종'을 선택했어요[22].

22) 참여자3의 이 말은 중국어 ''가끔'是偶然嘛，有那种偶然性。但這个不是偶然性，是那

학습자와의 일부 인터뷰를 통해 '가끔, 때때로, 종종'에 대한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가끔, 때때로, 종종' 가운데서 '가끔'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이의 난이도와 학습자가 이에 대한 익숙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에 따라 '가끔'은 '때때로, 종종'보다 난도가 낮다. 또 Ⅱ장에서 살펴본 실제 교육 현장에서 4부 교재에서의 제시순서는 모두 '가끔'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는 세 부사가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 기본의미 및 용법을 가장 먼저 익힌 '가끔'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양이 많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종'에 대한 인식이 '가끔'보다 능숙하다는 것보다, 언어 학습에서 부정적 전이인 간섭(interference)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데, 문항 21에서 '수시'를 중국어에서 '언제나'를 뜻한 '隨時'로 대응하고 '종종'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자는 '가끔-때때로-종종' 가운데 '종종'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수시'와 공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종종'이 허용되지 않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는 '때때로'와 '종종'의 어떠한 유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되지 못한 양상이 보인다. 이는 Ⅱ장에서 교재 제시 양상에서 살펴보듯이 '때때로', '종종'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고, 관련 연습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단순화하게 기본적 의미로 변별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种隔一段時間就有一次，一种習慣吧。'로 말했다.

<표III-10> '자주', '흔히'의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의 선택 양상

괄호안에 적절한 선택을 고르세오.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27. 그것은 외교 교섭에서 ( ) 있는 일이기도 하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A. 21.25% B. 27.5% C. 51.25% D. 0%	A. 3.33% B. 6.67% C. 90% D. 0%
28.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 ) 싸우다 보니 부부 싸움은 버릇이 되었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A. 85% B. 8.75% C. 6.25% D. 0%	A. 100% B. 0% C. 0% D. 0%
29. ( ) 이럴 때 찾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A. 7.5% B. 90% C. 2.5% D. 0%	A. 6.67% B. 93.33% C. 0% D. 0%

문항 27은 이일은 외교 교섭에서 많이 잦게 일어나는 것임을 표현한다. '자주'의 '여러 번 잦게 되풀이하다'를 의미하는 [+고빈도]와 '흔히'의 '보통보다 더 자주 일어나서 쉽게 접하다'를 의미하는 [+고빈도]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둘 다 맞다'가 정답이다. 이를 밝히듯이 90%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압도적으로 둘 다 맞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응답 양상에 따르면 역시 '둘 다 맞다'가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지만 '자주', '흔히'를 선택한 응답도 적지 않게 비교적 분산된 모습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두 부사의 공통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나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항 28은 통해 싸우는 행위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거듭되어 습관으로 변화됨을 밝히는 문항으로서 [+습관/버릇]의 의미 특성이 지닌 '자주'가 적절하다. 이를 밝히듯이 100%의 모어 화자가 어김없이 '자주'를 선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도 1위 선택이 '자주'지만 모어 화자의 선택에 비해 비율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의 [+습관/버릇]의 의미자질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문항 29에서도 거의 유

사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항 29는 '흔히'의 [+접촉] 의미자질을 체현한 문항이지만 두 집단은 문항 28과 비슷한 응답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흔히'의 [+접촉]의 의미자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 형성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자: 27번에서 '흔히'를 선택한 근거는 뭐죠? 참여자1: 이 문장은 부정적인 어휘가 없어서 '흔히'를 선택했어요. 참여자6: 엄숙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엔 '흔히'가 적절한 것 같아서요.
연구자: 28번에서 왜 '자주'를 선택했어요? 참여자2/참여자4/참여자5: 자꾸 싸워 버릇이 되니 '자주'를 택했어요. 참여자6: '자꾸'가 있으면 '자꾸'를 선택할 것인데 '자꾸'가 없어서 '자주'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29번에서 왜 '흔히'를 선택했어요? 참여자3: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경우나, 공식적으로 아는 통념이라는 느낌이면 '흔히'를 선택해요. 참여자4: '흔히'라면 다들 사회적으로 약속이나 습관이 드는 느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흔히'를 사용하는 느낌이 있어요.[23]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주'와 '흔히'에 대한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자주, 흔히'의 공통 의미 특성보다 변별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 이는 목표 언어의 복잡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직관으로 두 부사는 어떤 일이 잇달아 잦게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자주, 흔히'가 두 부사가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자면, 학습자는 '자주, 흔히'에 대한 의미 인식이 좁아 두 부사 간의 유의 관계에 대하여 생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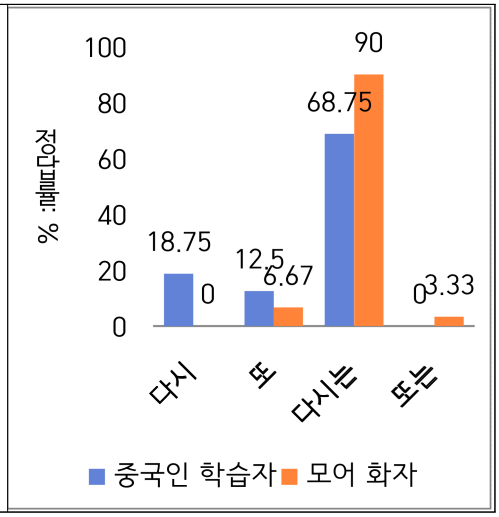
23) 참여자4는 또''자주'就是經常。흔히就是通常' 중국어로 보충하였다.

둘째, 학습자는 ‘자주’의 [+습관/버릇]의 의미 특성과 ‘흔히’의 [+접촉]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도는 모두 비교적 높게 보이지만, ‘흔히’의 [+접촉]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 보인다. 이는 학습자가 ‘흔히’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장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 발췌한 인터뷰 내용과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자주’의 [+습관] 의미 특성에 대하여 ‘자꾸’를 통해 추론된 판단으로서 크게 확신하지 않은 양상임을 보인 반면, ‘흔히’의 [+접촉]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의미 확장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자주’의 대한 의미 확장은 ‘흔히’의 대한 의미 확장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한다.

2.2. 화용적 특성에 따른 이해 양상

앞장에서 살펴보듯이 반복상 시간부사의 다양한 화행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강화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낮춰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게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나 완화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본절은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의 선택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자는 어느 부사에 대한 경향성을 드러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문항 17, 25, 31을 통해 화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청자와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문항 15, 16, 26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였으나 청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17.가: (　　) 잘못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와서 사과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A. 다시 B. 또 C. 다시는. D. 또는[24]	

문항 17은 '다시는' 형태에 뒤의 부정 내용을 결합하는 양상으로 앞으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노력하려는 '사과'의 발화 의도가 표현하였다. 화자는 '다시는'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반성 또는 미안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청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입증하듯 두 집단의 1위 선택은 모두 '다시는'이다. 그렇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선택 비율은 한국어 모어 화자만큼 높지 않다. 중국인 학습자의 2위 선택은 모어 화자 집단에서 0%로 드러나는 '다시'이고, 3위는 모어 화자 집단에서의 2위 선택이지만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는'을 사용하여 화자의 뉘우침을 강화하여 '사과'의 의도가 표현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해 양상을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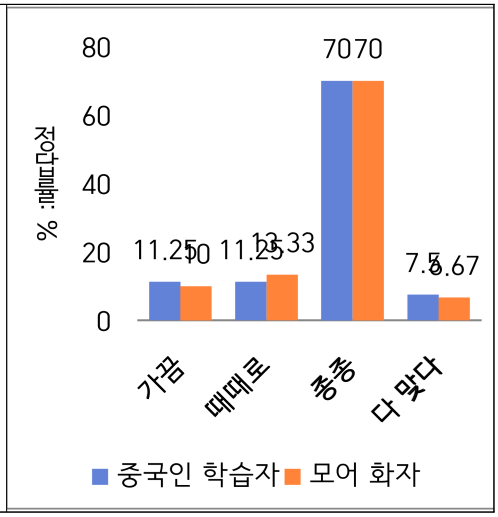
연구자: 왜 '다시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 이 것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은 것이라 '또'는 꼭 틀렸고, '

24) '다시'의 화자 노력 의도 표현의 화용적 특성을 드러나려면 꼭 '다시는'의 형태로 사용하여 문항 17의 선택항을 '다시, 또, 다시는, 또는'으로 설계하였다.
25) 참여자1은 중국어로 '再也不怎么怎么樣的意思'라고 했다.

다시는'은 '실수를 한번 더 하지 않겠다[25]'라는 뜻이라서 '다시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3: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봐서요.
참여자4: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다시는'는 '다시'보다 반성의 느낌을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다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6: 읽어보니 '다시'인 것 같네요.

위에 제시하였듯이, '다시는'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뉘우침을 강조하여 청자에 대한 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응답 양상과 결합하여 살펴보면 일부 학습자들은 '다시' 아닌 '다시는'가 뒤에 부정적인 어휘를 공기하여 '사과'하는 특성에 민감하지 않고, 단순히 어감으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는 '다시는'보다 '는'이 없는 '다시'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어에서 '은/는'과 대응할 수 있는 어휘나 보조사가 없어 중국인 학습자는 '은/는'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령 2012). 따라서 학습자가 단순히 어감으로 판단할 때 '다시'가 부정적인 어휘에 공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는'을 통해 표현되는 '사과'의 발화 의도에 대해 생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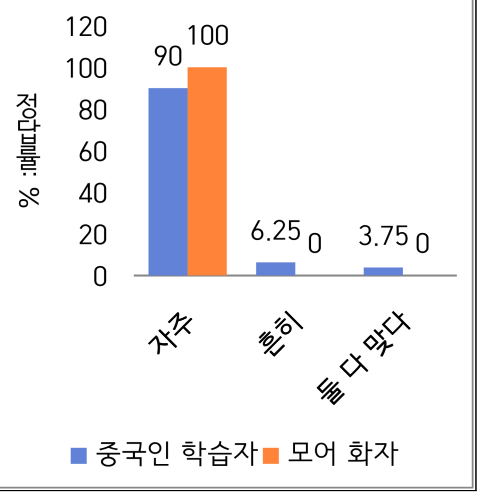
25 가: 요즘 전동 휠체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나요? 나: 전동 휠체어 사고가 생각보다 (　　) 일어나는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문항 25는 '종종'을 통해 전동 휠체어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모두 같은 비율로 '종종'을 1위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선항에 대한 비율도 거의 일치하다. 또한 앞서 피셔의 정확 검증 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것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종종'의 이 화용적 특성을 사용할 때 거의 한국인만큼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종종'은 '가끔-때때로-종종'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자주'와 공기할 수 있음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역시 의미 층위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종종'을 활용하여 화자가 '휠체어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보다 청자와의 공통 토대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문항의 일부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자: 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 '생각보다 자주'라는 느낌이 들어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2: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나서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5: '종종'은 발생하는 확률가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문항 31은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화자'가'는 '자주'를 사용하여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지키고 결심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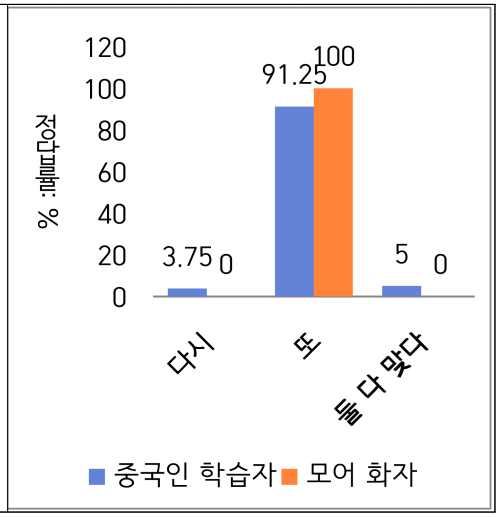
31. 가: 병문안, (　) 갈 게! 나: 오지마.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기타_	

위에 제시하듯 문항 31의 응답 양상에서 두 집단은 모두 독보적으로 '자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는 사용 맥락에 따라 '자주'를 통해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강화하여 의지 표명의 발화의도을 표현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집단의 응답 양상에서 서로 중국인 학습자는 '흔히'에 대한 수용성이 모어 화자보다 비교적 높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해 맥락에 따라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히'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주, 흔히'는 모두 '經常'으로 대응할 수 있고, '經常'은 의문문에서 고빈도의 규율성이 드러나고, 주관적인 개인의 소원을 표현할 수 있는 화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倪夢嫻 2016). 따라서 학습자는 한국어에서 이와 대응할 수 있는 어휘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자주'를 활용하여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여 표명하는 의도에 대한 인식은 모어 화자 집단과 비해 역시도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왜 '자주'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 '병문안' 같은 상황에서 '자주 가다'라고 표현하면 자신의 의도 뚜렷하게 강조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2: '병문안'이라면 꼭 많이 갈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자주'가 맞죠.

문항 15에서는 '또'를 통해 화자 '가'가 화자 '나'의 늦게 온 행위에 대한 문책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여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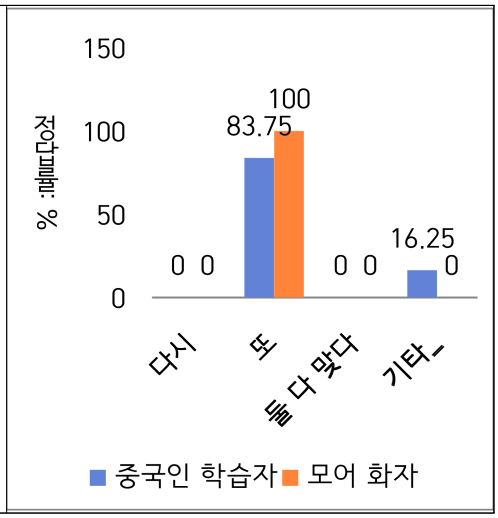
15. 가: 왜 (　　) 늦게 왔어요? 나: 어제 술을 마셔서 늦게 잤거든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위에 제시하듯 문항 15의 응답 양상을 살피면 두 집단은 모두 '또'가 적절한다고 판단하였다. 미세한 차이로 일부분 학습자는 모어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둘 다 맞다', '다시'를 적절한 응답으로 취한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이해 양상이 보이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일부 인터뷰

내용에서 추론하고자 한다.

연구자: 왜 '또'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 여기에서 잘못을 캐묻는 느낌이 든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또'를 선택했어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왜 또 이래'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참여자2/참여자3: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 상황, 감정이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둘 다 맞다'를 선택했어요? 참여자6: 그냥 듣기 자료로 생각하면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서 '둘 다 맞다'로 선택했어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고급 학습자는 '왜 또'의 형태에 익숙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할 때 '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문맥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충분하지 않아 '다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있다. 이는 언어 간 간섭과 유용이 모두 작용되었음을 추측된다. '다시, 또'는 모두 '又'와 대응할 수 있고(진다위 2011), '又'는 불만 또는 책망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許波 2020).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또'의 '불만 토로' 특성에 대하여 대부분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학습자는 '다시'와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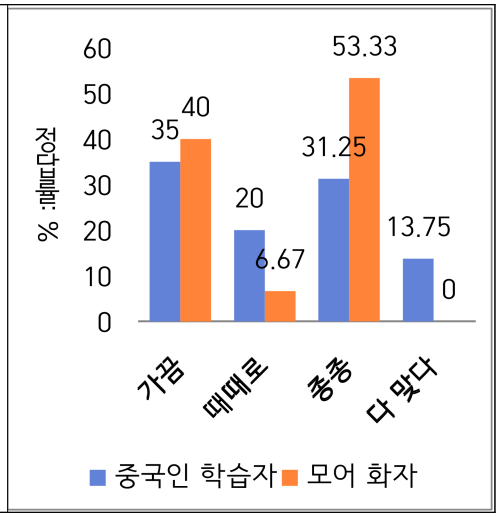
16. 가: 갑자기 당신이 무서워지네요. 나: 그건 ( ) 무슨 생뚱맞은 말씀?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문항 16에서 '또'를 사용함으로써 화자 '나'는 화자 '가'의 말에 대하여 의외로 여기며 놀라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00%의 모어 화자는 '또'를 선택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1위 선택은 '또'였으나 모어 화자의 비율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인 학습자의 2위 선택인 '기타_'를 살펴보면 모두 '비움, 없음, /'등을 비롯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의도를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또'의 '놀람'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으나, 부분 학습자가 이를 민감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보면 깊이 이루지 못한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어 언어 내 복잡성, 언어 간 간섭으로 추측된다. 우선 한국어는 언어 특성으로 인해 생략 현상이 타 언어에 비해 더 다양하고 많이 일어난다(박민영 2019:10). 따라서 학습자는 '또'가 있든 없든 모두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기에 '또'의 '놀람'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BLCU Corpus Center)에서 구축된 BCC 코퍼스에 따라 중국어에서 '그건 또 무슨...'와 대응하는 연어 '那又是什么'(166회)보다 '그건 무슨'와 대응하는 연어 '那是什么' (5864회)의 출현 횟수가 더 많다. 즉, 언어 간 간섭으로 중국인 학습자는 '또'가 추가하지 않은 문맥에 대하여 더 쉽게 수용하는 데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기타’를 선택하셨네요. 참여자6: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것보다 그대로 비여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기타’를 선택해서 비움이라고 표시해났어요.

문항 26은 '종종'의 예상 밖의 일이나 앞뒤 차이가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때 화자의 궁금함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반증의 발화 의도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용적 특성을 표현하는 예문이다.

<table>
<tr>
<td>26.
가: 유민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　　) 듣곤 했는데, 요샌 통 소식이 없네.
나: 그러게, 나도 요새 만난 적도 없고.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td>
<td> 
</td>
</tr>
</table>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53.33%의 모어 화자는 ‘종종’을 1위 선택항으로 취급하는 반면, 중국인 화자는 ‘가끔’을 1위 선택으로 선정하였다. 또 ‘종종’을 2위로 선택하였으나 ‘가끔’과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어서 비교적 균형적으로 ‘때때로’와 ‘다 맞다’를 선택한 양상이 드러났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종종’의 ‘반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모어 화자에서도 2위 선택이 ‘가끔’이며, 비율이 1위 선택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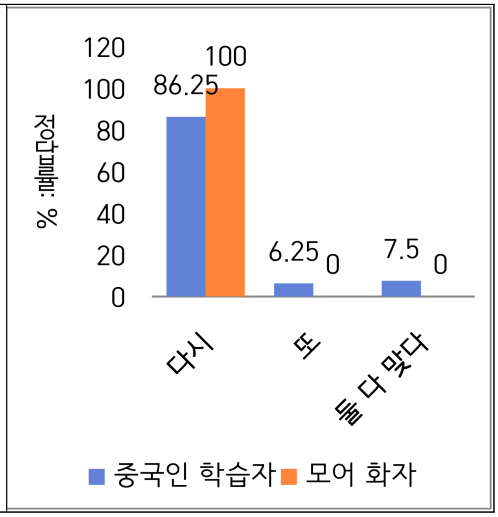
체적으로 어떠한 이해 양상이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 '많은'이 있어서 '종종'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참여자2/참여자3: 앞에는 많이 들었는데 뒤에는 아무 소식도 없으니 앞뒤 대조하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종종'을 선택했어요.

위에 제시하듯, 중국인 학습자는 '종종'을 사용하여 앞 뒤 차이가 큰 경우에 대한 궁금함을 강조하는 '반증'의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가끔'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며 혼동을 겪고 있다. 또 '종종'을 선택하는 경우 양이 많음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요컨대,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특정 발화의도을 드러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맥 또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양상과 함께 의미 층위로 고려하는 경향과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혼동하는 부분이 있음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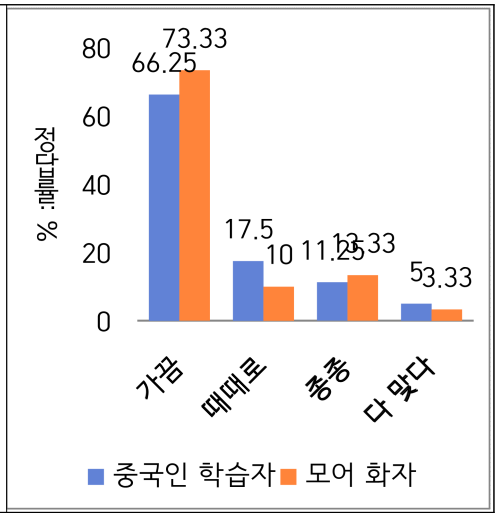
한편,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청자 소극적 체면을 지키도록 상대방에게 주는 불쾌감을 줄이고 공손함을 보여주는 화용적 효과도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 14, 22, 23, 24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가: (　　) 말해서 아무리 멋진 광고도 어떤 상품을 한 번 써보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문항 14의 '다시 말해서'를 사용하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뒤 문장은 앞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점을 다시 정리하는 작용을 하면서 청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전달한다. 이를 밝히듯 100%의 모국어 학습자는 '다시'를 선택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1위 선택도 역시 '다시'지만 모어 화자의 비율에 대해 차이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모어 화자가 고려하지 않은 '또'를 선택한 학습자는 소수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아래 일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자: 왜 '또'가 아니라 '다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2: 제 생각에 '다시 말해서'든지 '또 말해서'든지 여기에서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하나를 써넣어야 한다면 '다시'를 선택할 것인데 이유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참여자3: 어학원에서 배워 본적 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배워 봤던 것 같아요. '또 말해서'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가 제일 합리해 보여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참여자6: 이 문장은 요약해서 말하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또 말해서' 이런 표현은 틀린 것 같아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급 학습자라도 '다시 말해서' 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이를 통해 화제의 중점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을 전제하며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없고 기대만을 하고 상대방의 불쾌를 줄이려고 소극적 체면을 지키는 '진술'의 역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의 진술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다형 문항에서는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스스로 사용하고자 하려면 회피할 수 있거나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확실하게 습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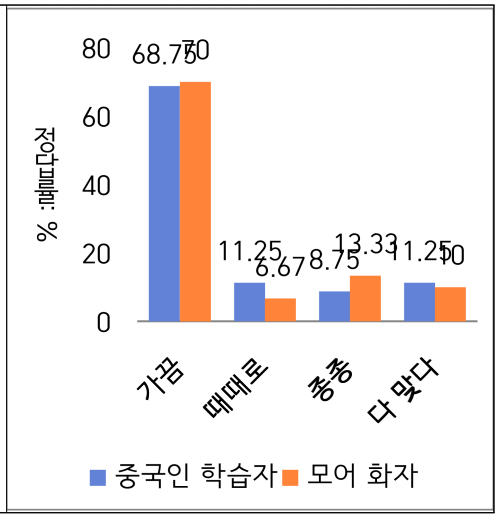
22. 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 ) 먹어야 맛있지. 나: 맞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야.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문항 22에서는 화자 '가'는 '가끔'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나'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완곡하게 제기하여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였으나, 불쾌감을 줄여서 겸손함을 드러냈다.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모두 '가끔'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모어 화자는 '종종'을 선호하는 반면, 학습자의 3위 선택이 '종종'이다. '종종'을 3위 선택이라 하더라도 2위를 차지한 '때때로'의 비율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른 한편, 앞서 피셔의 정확 검증을 통해 두 집단 간 정답률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어서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의 ‘제안’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 양상이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왜 '때때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4: 빈도로 생각할 때 '때때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보면 앞 뒤 상황을 고려하면 '가끔'이 맞는 것 같네요. 연구자: 왜 '가끔'을 선택했나요? 참여자5: 읽어보면 '가끔'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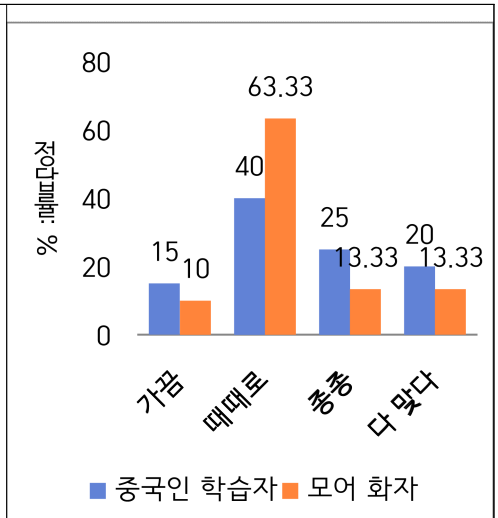
위의 인터뷰 내용에 보여주듯,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였으나 어느 정도 불쾌감을 줄이고 공손하게 ‘제안’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간단히 어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양한 맥락에서 ‘가끔’이 다르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기본적 의미인 빈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가끔'에 대한 인식은 의미 층위로만 이루어지고 화용적 층위에 대한 접근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23 상황: 화자'나'는 현기증이 났는데 화자'가'가 걱정할 까봐 괜찮다고 응답하다. 가: 괜찮으세요? 나: 네. 괜찮아요. ( ) 현기증이 나서, 그래 그랬을 거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문항 23은 화자 '나'는 '가끔'을 통해 화자 '가'의 심정을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실행하였다. 위 그림에 제시하듯이 문항 23의 응답 양상은 문항22와 유사하다. 두 집단의 1위 선택은 모두 '가끔'이고, 중국인 학습자는 '종종'보다 '때때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해당 문항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문항 22와의 인식 양상이 역시 비슷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자: 왜 '종종' 선택했어요? 참여자1: 어감으로 선택했어요. 참여자6: 빈도를 생각해서 '종종'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가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2: 왜냐면 여기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이 나오고, 현기증은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기증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 아닌 거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을 선택했어요.

위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는 '가끔'의 '위로'에 대한 이해 방식은 '제안'과 마찬가지로 의미 층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다양한 맥락에서 달라지는 '가끔'의 화용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용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고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4 상황: 두 사람은 방송의 시청률 변화를 이야기한다. 가: 잘 나갈 때 삼사천 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잘 안 나갈 때 백 명이 안 될 때도 있죠. 나: 아~ 그렇구나. 가: 그러니까 이게 좀 ( ) 달라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문항 24는 화자'가'는 '때때로'를 통해 방송이 잘 나갈 때와 잘 안 나갈 때 시청자의 규모 변화가 있는 것을 유심해야 함으로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청자에게 알려드리는 '주의'의 의도를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를 해석하듯 두 집단은 모두 '때때로'가 가정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위 표에 제시하듯 중국인 학습자의 선택 비율은 모어 화자에 비해 작지 않은 격차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모어 화자의 응답 양상보다 더 분산된 모습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해 양상을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자: 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 '가끔, 때때로, 종종' 다 어색한 것 같은데, '종종 다르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종종'을 선택했어요. 또 삼사천명이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종종'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자: 왜 '가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2: '때때로'와 약간 헷갈리긴한데, 항상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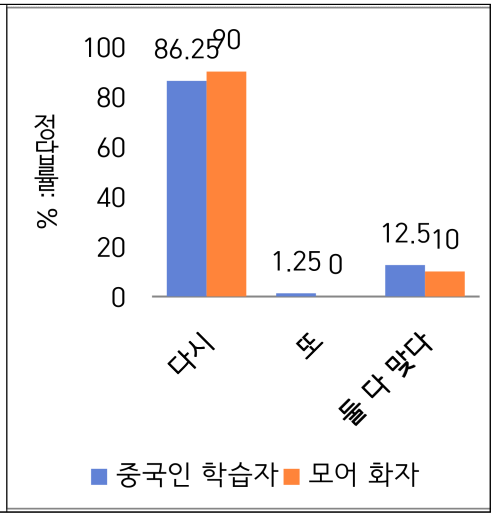
라 '가끔'이 더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3: '가끔'의 의미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때때로'를 선택했어요?
참여자4/참여자5/참여자6: '잘 나갈 때'와 '잘 안 나갈 때'의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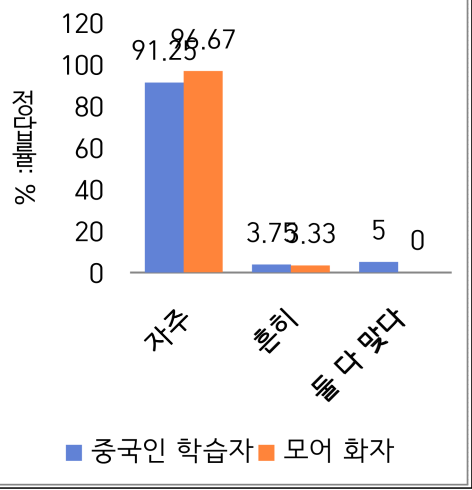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가끔'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때때로'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부담을 줄여서 화자 자신의 견해를 드리고 청자의 '주의'를 일으키려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판단의 근거는 익숙함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급 학습자에게도 '때때로'가 파악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어감도 체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청자의 불쾌감을 최소화하여 화자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여 공손함을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모어화자와 비해 예민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용적 층위로 화·청자 간의 체면 지킴 여부를 고려하는 것보다 의미 층위인 빈도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거나 단순히 익숙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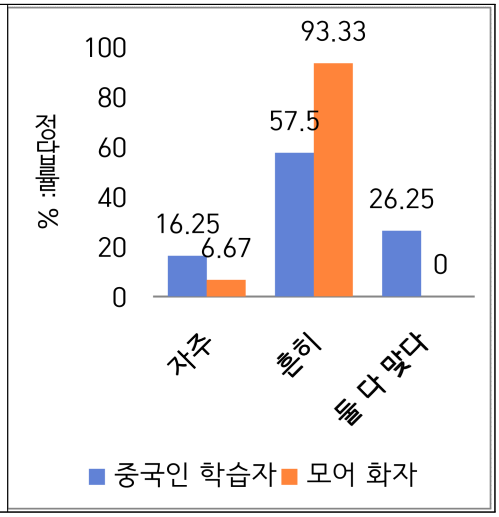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화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였으나 그나마 청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위협 행위를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화용적 효과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 10, 30, 32의 응답 양상을 살피도록 한다.

10. 가: 정말 고마운데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러지 말고 ( )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	

문항 10의 응답 양상을 살펴볼 때 두 집단은 비슷하게 모두 '다시'가 가장 적절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는 중국인 학습자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어 있는 화용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또'에 대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셔의 정확 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를 사용하여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였으나 어느 정도 세우려고 시도하고 '요청'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을 사용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0. 가: 요즘도 (　　) 가슈? 나: 매일 가죠. 혜초 여사 가게가 거기니까.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기타_	

문항 30은 앞장에서 언급하듯 화자'가'가 '자주'를 사용하여 화자'나'가 자신의 추측 대로 여전히 많이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는 상황이다. 위에 제시하듯 문항 30의 응답 양상은 문항 31과 일치하다. 두 집단은 모두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주'를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에 비해 약간 다르게 드러나는 부분은 학습자는 '흔히'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다른 한편, 앞서 통계 결과에 따라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 수준의 차이가 아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학습자는 이를 쉬운 내용으로 인식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 가: 증명사진이라 하면 다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나: 증명사진이라 하면 ( ) 똑같은 배경에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떠오르곤 하죠.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기타_	

문항 32에서는 '흔히'를 통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청자의 체면을 소극적으로 위협하였으나 부드럽게 표현하여 청자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려는 상황이다. 이를 증명하듯 93.33의 모어 화자는 압도적으로 '흔히'를 선택한 반면, 중국인 화자는 이를 1위 선택으로 취급하였으나 비율은 57.5%에 그쳤다. 모어 화자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자주'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는 '흔히'를 사용하여 체면 위협 완화 장치로 작용하는 '인정'의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아래 발췌한 일부 인터뷰 내용에서도 학습자는 단순히 어감으로 판단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따라 '자주'가 '흔히'보다 난도가 낮은 것이고, Ⅱ장에서 살펴본 교재에서의 제시순서에 따라 '자주'가 먼저 제시되어 학습자는 먼저 익힌 '자주'의 대한 확신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인 학습자는 '자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연구자: 왜 '흔히'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 '증명사진'이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똑같은'이 있어서 '흔히'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2: 그냥 어감으로 선택한 거예요.
참여자3: '...라고 하면'이 나와서 '흔히'를 선택했어요.
참여자4/참여자5/참여자6: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흔히'를 선택했어요.

위 논의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모어 화자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또는 의미 특성 층위로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거나 청자의 불쾌감을 최소화하여 공손함을 드러나는 완화 장치로 적용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구분은 의미 층위에 의지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학습자들은 유의관계를 지니고 있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 맥락에 따라 구분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은 '가끔, 때때로, 종종'을 사용할 때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것 보다 '가끔'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 '가끔'을 선호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것을 범용화 사용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화용적 정보인 발화 의도를 고려하여 반복상 시간부사를 변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어감, 익숙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용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어 화자 집단과 다르게 개별 부사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예컨대, '또'의 '불만토로'의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학습자의 1위 선택은 ‘또’로 나타났으나, ‘다시’와의 구분이 제대로 내재화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또는 ‘흔히’가 문맥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특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자주’에 대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류 원인 분석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해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많은 양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별로 사용상의 차이가 크지 않고 거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 '때때로', '종종'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양상인가 하면 '다시', '또', '자주', '흔히'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네 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모두 능숙한 것이 아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나름의 언어체계에 따라 반복상 시간부사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다. 예컨대, 문항 13, 문항 28에서는 부분 학습자는 적절한 부사를 선택하였으나 이를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대체하여 선택한 것이다. 즉, 반복상 부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언어(inter language)'를 근거로 대화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 양상에 대한 분석만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게 된 심층적 원인도 함께 알아볼 필요도 있다. 리차드(Richards 1974), 브라운(Brown 1994)에서는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크게 언어 간 간섭(interlingual interference), 언어 내적 간섭(interlingual interference), 그 외의 원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허용·김선정 2018:12). 본고는 이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언어 간 간섭, 언어 내적 간섭, 교육 과정의 부재로 나누어 살펴본다.

3.1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한 오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이미 모어의 언어 체계를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시간부사에 대한 인식은 모어의 언어 체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인식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언어인 한국어를 학습할 때 기존의 언어 체계를 활용하여 시간부사를 비롯한 새로운 부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범한 다양한 오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뷰 내용]

참여자2: '가끔, 때때로' 不都是偶爾的意思嘛，所以其實挺難分淸的。('가끔, 때때로'는 모두 '가끔'의 뜻이잖아요. 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연구자: 문항 8은 왜 '또'를 선택했어요? 참여자2: 딱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중국어로 번역해 봐도 자연스럽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라든지 말하기 힘들고 그냥 어감인거 같아요. 한 번 읽어보고 '또'가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문항 16에서 '기타'를 선택하셨네요. 참여자6: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것보다 그대로 비여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기타'를 선택해서 비움이라고 표시해났어요.
연구자: 21번에서 왜 '종종'을 선택했어요? 참여자1/참여자4/참여자6: '수시'不是'隨時'的意思嘛，所以肯定是這里頻率最高的'종종'最适合。('수시'는 언제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빈도가 제일 높은 '종종'과 어울리는 느낌.)
연구자: 18에서 '가끔'을 선택했네요. 참여자1/참여자6: 맑은 날이면 비가 오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참여자2가 '가끔, 때때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복상 시간부사는 일대일 대응관계보다 다대일의 대응관계가 이루는 경우가 많아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한국어 부사가 중국어에서 동일한 표현과 대응할 수 있어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혼란감이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하듯이 '다시, 또'는 모두 '再/又'에 대응할 수 있어 일부 학습자는 '또'를 '다시'와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는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흔히'는 모두 '經常'에 대응할 수 있어 문항 31에서 일부 학습자는 '흔히'도 '자주'와 마찬가지로 '추측'의 화용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를 잘 변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8에서 학습자는 '다시', '또'가 모두 [+계속]의 의미 성분을 지닌다고 판단하는데 바로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어에서도 제약 없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과하고 있다. 문항 16에서 적지 않은 학습자는 '또'가 없으면 더 적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체 문맥의 변화에 대해 간과하고 특정 어휘의 의미에 의지하여 오류를 범한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것보다 특정 어휘에 따라 선정한 반복상 시간부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언어 간 간섭의 영향을 보였다. 문항 21의 학습자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시'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여 적절하지 않은 '종종'을 선정하였다. 문항 18에서도 학습자는 '맑은 날'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2 언어 내적 간섭으로 인한 오류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데 모국어의 영향, 즉 언어 간 간접으로 인한 오류 외에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도 있다. 언어 내적 간섭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규칙 과잉일반화, 문법 규칙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오류 원인을 살펴보는 데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참여자3: 문항7에서는 첫눈에는 '다시'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또'를 선택했어요. 문항12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말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없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이 없어서 '다시'를 선택했어요. 문항13에서는 '또는'이 혹시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또는'이 없어서 '또'를 골랐어요. 문항18, 19, 24에서는 '가끔'이 제일 익숙하고 의미가 가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을 선택했어요. 문항 27에서는 그리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흔히'를 골랐어요. (참여자3과의 면담 내용 중 발췌)
참여자4: 문항8에서 '묵묵히'가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또'를 선택했어요. 문항 13에서 '또는'을 고르고 싶은데 없어서 '또'를 골랐어요. 문항19에서는 '가끔'을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여기에서 이거는 꼭 안 맞다고 생각해서 '가끔'을 선택했어요. (참여자4와의 면담 내용 중 발췌)
참여자6: 문항 20에서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종종'을 골랐어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내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참여자3과 참여자4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먼저 익힌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호하고 과잉 적용하여 모어 화자 집단와의 사

용 차이를 일으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난도가 낮은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호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략인 회피 전략을 적용하여 이를 범용적으로 과잉 적용시켜 그른 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앞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는 '다시-또' 가운데서 '또'를 선호하여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있는 문맥에서 '다시'를 고려하지 않아 '또'만 적절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상황이다. '가끔-때때로-종종'에서 '가끔'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경우에 앞뒤 맥락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종종'을 적절하다는 등 상황에서도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참여자3, 4, 6와의 인너뷰를 통해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세부적인 차이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은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별 의미·화용적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에 대한 둔감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생략 현상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워 학습자는 '또'의 '놀람'의 발화 의도에 대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다시'의 '사과', '진술' 및 '흔히'의 '인정'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모어 화자와 다르게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역시 목표 언어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오류이다.

3.3 교육 부재로 인한 오류

앞 절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데 중국인 학습자가 오류를 범한 원인을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 두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Ⅱ장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 부재로 인한 오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 장을 통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반복상 시간부사가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반복상 시간부사가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만 일부 시간부사는 결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예컨

대, '때때로'와 '종종'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때로는 교재에 제시되었으나 부록 부분에 나오고 있다. 즉, 이와 같이 부록에 제시하는 것은 해당 부사들이 교수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교수 내용으로 취급하여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학습 정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교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해석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는 데 그친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시간부사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교재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연습도 단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재에 제시된 학습 정보는 그리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의 학습자 인식을 고찰하려는 부분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 교재에서 제공하는 학습 정보가 아주 충분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15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33명으로 41.25%였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18명으로 22.5%,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14명으로 17.50%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에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제공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다. 이는 설문지에서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를 합하여 18명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53.75%였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하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후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연구자: 한국어 배울 때 수업에서 선생님이 '자주'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의미 특성이 있다고 얘기해준 적 있어요? 참여자2: 수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관련 연습도 얼마 없는 듯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얼마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듯해요.

연구자: 수업에서 '다시는' 뒤에 부정표현과 호응할 수 있다는 점 배웠나요?
참여자3: 선생님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면서 스스로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의미만 제시하고 다른 거는 없는 거 같고, 선생님께서도 얼마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한국어 배울 때 이 7개 부사를 다 배워본 것 같아요?
참여자4: '때때로' 빼고 다 배운 것 같은 데, 그냥 의미만 해석해주고 어떤 상황에 적절한 지는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드라마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두 부사의 차이점을 비교하지 않으며 의미를 집중으로 교수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때로 교사는 차이점이 있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 학습자는 교실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을 습득한다.

Ⅳ.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설계

앞서 Ⅲ장의 분석을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이더라도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의미·화용 특성 측면에서의 미묘한 차이로 인한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추출된 학습자의 이해 양상, 오류 원인, 학습자 인식과 Ⅱ장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당한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목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뚜렷한 교수·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핵심적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26](communicative competence)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구본관(2011: 37)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확충하고, 어휘 활용 능력을 기르고,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의 세 가지로 밝혔다. 다른 한편, 언어 교육 목표를 보편적으로 목적과 목표로 구분하여 다룬다. 성기철(1998: 42), 브라운(Brown 2010: 174), 민현식 (2008: 279)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교육 목표를 '목적(goals, aim, purpose)'과 '목표(objectives)'로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목적'은 언어 교육이 지향하려는 큰 방향을 잡기위해 본질에 초점에 두는 것이고, '목표'는 큰 방향에 따라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복상 시간부사는 공통적인 의미적 특성이 지닌 동시, 다양한 시차적 의미자질과 화용적 특성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기본적인 의미만을 습득한 경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26) 강현화(2017: 6)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능력을 비롯한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이 포함한다고 하였다.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이해 양상을 통해 방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이해 및 산출 능력을 갖추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는 개별 반복상 시간부사의 기본적인 의미만 익숙하여 확신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든 해당 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예컨대, 학습자는 '가끔'에 기본적인 의미를 숙지하여 어떤 상황이든 '가끔'이 모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더욱 명확하고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깊이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미묘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도 드러났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학습자는 '다시'와 '또'는 모두 [+반복]의 의미자질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뜻을 드러나는 어휘가 있으면 '또'만 공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자주'와 '흔히'를 구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문맥에서는 '자주'만 공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를 깊이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아래<표Ⅳ-1>로 제시할 수 있다.

<표Ⅳ-1>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목적 및 목표

목적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이해 및 산출 능력을 갖추어 해당 상황에서 알맞고 적절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활용하여 모어 화자만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목표	1. 반복상 시간부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두드러지게 강화하거나 약화하여 청자에 대한 공손함, 또는 상대방의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변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반복상 시간부사의 기본적 의미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화자 또는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의 관계를 지닌 반복상 시간부사를 다양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다.

2.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내용

본 절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교수·학습하는 데 적절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 장에서 설정한 교수·학습 목적 및 목표를 따르도록 Ⅱ장에서 다룬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과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본고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정확성 및 유창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차이를 변별하고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문금현(2004)에서는 유의어 변별 난이도에 따라 4단계의 변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변별 기준은 화용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반복상 시간부사 및 Ⅲ장에서 분석한 이해 양상을 결합하여 학습자가 반복상 시가부사를 상황에 맞게 구분하고 의사소통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Ⅲ장에서 분석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났다.

첫째,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여 학습자는 이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는 교재에서 의미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습자는 의미를 알고 있으나 이를 스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언어습관과 반복상 시간부사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특성이 드러난다. 예컨대, 중국인 학습자는 '종종'을 중국어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대일 대응할 수 없을 수 있는 어휘로 사용한다. 또는 중국인 학습자는 '또', '흔히' 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사용할 때 특정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셋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서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습자는 어떤 상황에 어느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해야 적절한지 구분하기 힘들어 의사소통 시 오류를 범하기 쉽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 반복상 시간부사의 기본 의미.
2.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
3. 반복상 시간부사 사이의 변별 및 사용.

2.1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내용 위계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표준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였다. 이 가운데 어휘를 교수·학습하는데 등급별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 이현희(2016: 362-364)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에 목적을 둔 어휘 학습의 방안을 마련하기 전의 어휘 교육 목표를 점검해보면 고급 단계에서의 등급별 어휘 학습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자면, 효과적인 어휘 교육을 이루기 위해 어휘 선정 및 위계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어휘 위계화는 다양한 단계

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위 등급과 매끄러운 맥락이 되도록 연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반복상 시간부사의 위계를 설정해야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구안할 수 있다고 본다.

위계화의 기준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문법 영역에서의 위계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강현화(2012:310)에서는 빈도, 문법 항목의 복잡도, 학습자의 난이도, 활용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방성원(2021: 100-105)에서는 빈도, 유용성, 교수·학습 용이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빈도와 교수·학습 용이성은 공통적으로 제시된 기준이다. 다음은 어휘 영역에서의 위계화 기준을 살펴보면 Nation(2018: 628)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빈도라고 하였다. 강현화(2017: 50)에서는 어휘 위계화의 기준에는 빈도, 중복 범위, 사용 분포 빈도, 학습의 용이성, 활용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위 학자의 논의에서 제시한바 어떠한 영역이든 빈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습 용이성 역시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위계화하기 위해 빈도와 학습 용이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앞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와 SJ-RIKS 코퍼스 확장판을 통해 반복상 시간부사의 빈도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를 모아서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Ⅳ-2> 반복상 시간부사의 빈도수

자료 출처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
김 한 샘 (2005)	3619	5703	375	67	112	504	457
SJ-RIKS 확장판	155160	222937	12699	4442	18758	18758	15783

위 표에 제시된 빈도수를 따르면 '또', '다시', '자주', '흔히', '가끔', '종종', '때때로'의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 이러한 빈도 정보에 따라 순서대로 반복상 시간부사를 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는 데 빈도만 고려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음은 학습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다루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다음 표와 같이 등급화할 수 있다.

<표Ⅳ-3>『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 의해 등급화된 반복상 시간부사

등급	반복상 시간부사
초급	다시, 또, 가끔, 자주
중급	때때로, 종종, 흔히

앞서 논의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어휘의 기본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Ⅱ장과 Ⅲ에서의 논의를 결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순서를 추출하도록 한다.

먼저 '다시'와 '또'같은 경우 모두 초급으로 규정되었다. 또 Ⅱ장 교재 분포양상에서도 모두 초급으로 보여주었고, Ⅲ장에서 다루었던 학습자 이해 양상에 따르면 학습자는 '또'를 가장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볼 때 '또'의 [+연결], [+추가], 부정 감정을 강조하기의 화용적 특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문맥에 '또'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또'의 기본적인 의미인 '여러번 잇달아'에 대하여 익숙하지만 개별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아직 깊이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에 대하여 학습자는 [+수정], 완곡하게 행위 요청하기의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익숙하고 사후 인터뷰도 같은 양상으로 확인하였다. 또 두 부사가 공통적으로 지닌 [+반복]의 의미자질은 기본적인 의미이고 학습자는 양자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시, 또'의 기본적인 의미는 초급에

제시하고 의미·화용적 특성 및 두 부사에 대한 구분 교육은 중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끔', '때때로', '종종' 같은 경우 '가끔'은 초급에 제시되어 있고 '때때로', '종종'은 중급에 제시되었다. Ⅱ장 교재 분포양상에서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가끔'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와 일치하게 초급에 제시되었지만 '종종', '때때로'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 Ⅲ장의 학습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세 부사에 대하여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양상으로 드러났지만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가끔'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빈도수로 살펴볼 때 '가끔', '종종', '때때로'의 순위로 배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기본적 의미 층위로 살펴볼 때 '가끔'은 초급에 제시하고, '종종'은 중급, '때때로'는 고급에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성별로 살펴볼 때는 학습자 이해 양상에 따라 '가끔'이 드러나는 의미·화용적 특성은 초급으로 제시하고, '종종'은 중급, '때때로'는 고급이고, 세 부사에 대한 구분은 고급에서 제시할 것이다.

'자주', '흔히' 같은 경우 '자주'는 초급에 제시되었고 '흔히'는 중급에 제시되었다. Ⅱ장 교재 분포양상에서의 분포양상을 살펴볼 때 대체로 이와 일치한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Ⅲ장의 학습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흔히'를 '자주'만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양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 빈도수로 살펴보면 '자주', '흔히'의 순위로 배열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본적 특성 및 특성 별로 살펴볼 때 '자주'는 초급에 가르치고 '흔히'는 중급에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분은 중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배열된 위계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Ⅳ-4> 반복상 시간부사 위계화 결과

초급	'다시', '또'의 기본적 의미 '가끔', '자주'의 기본적 의미 및 의미·화용적 특성
중급	'다시', '또', '종종', '흔히'의 기본적 의미 및 의미·화

	용적 특성 '다시'와 '또'의 구분 '자주'와 '흔히'의 구분
고급	'때때로'의 기본적 의미 및 의미·화용적 특성 '가끔, 때때로, 종종'의 구분

2.2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 내용

Ⅱ장에서 다루었던 한국어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현황을 통해 교재에서의 제시양상은 보편적으로 의미 제시에 그치고 해당 연습이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의 테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해석이 없었다. 한편, Ⅱ장에서 다루었던 반복상 시간부사의 다양한 특성은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강조 또는 약화함으로써 청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 이용 양상을 통해 학습자는 이에 대한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다시'와 '또'의 교육 내용

Ⅱ장에서 다루었던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 및 제시양상과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다시'와 '또'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 층위로 살펴볼 때, Ⅱ장에서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다시'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되풀이하다, 새로이, 이어서, 회복'으로 제시하였다. '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미는 '거듭하다, 그래도 혹시, 추가'이다. 다음으로 의미 성분 분석법을 통해 두 부사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은 [+반복]임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행위가 거듭되거나 되풀이하는 상

황에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통적인 의미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다'이다. 그렇지만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부정적인 뜻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같은 행위나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시'도 수용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 다른 한편, 학습자는 '다시, 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에 대한 확신이 높고, 과잉일반화 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만큼, 학습자가 '다시'의 [+계속], '또'의 [+추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또'에 대한 과잉일반화 경향을 방지하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상황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화용 층위로 '다시'의 '사과', '진술', '또'의 '불만토로', '놀람'의 발화 의도, 예외 상황에 대한 '놀람'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문이나 발화 장면을 설정하며 제시해야 한다. 앞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드러나는 맥락에 대하여 예민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화용적 특성을 강조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 '다시, 또'에 대한 교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전이인 유용으로 인해 학습자는 '다시', '또'의 개별 의미·화용적 특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전이인 간섭으로 인해 오류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시, 또'를 습득할 때 유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을 제시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다시, 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에 대한 확신이 높고, 학습자가 '다시'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또'에 대한 과잉일반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하고 충분한 상황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듯, 개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뿐만 아니라, Ⅱ장에서 해당 연습 및 활동이 결여하여 학습자가 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충분한 상황 맥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부정적인 뜻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같은 행위나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시’도 가능하고, 화자의 놀라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또’를 생략하는 것보다 추가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위에 다루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 다루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5> '다시'와 '또'의 교육 내용

	다시	또
의미 정보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다.	
	하던 것을 계속하여, 이어서.	그래도 혹시.
화용 정보	-잘못을 뉘우치는 노력의 의도를 강조하려는 '사과'의 발화의도.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나 요구하지 않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진술'의 발화 의도.	-부정 감정을 강조하는 '불만토로'의 발화 의도. -예외 상황에 대한 '놀람'의 발화 의도.
[유의점]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을 제시할 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설명도 추가해야 함. -다양하고 충분한 상황 맥락을 제공해야 함.		

2.2.2 '가끔', '때때로', '종종'의 교육 내용

앞장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끔', '때때로', '종종'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의 논의에서 ‘가끔, 때때로, 종종’ 사이에는 미묘한 의미 차이, 다양한 화용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사전을 통해 살펴본 '가끔'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사이가 얼마쯤씩 있다'로 제시하였다. '때때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미는 ‘이따금씩’이고, '종종'은 공통적으로 '가끔, 또

는 때때로'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얼마쯤씩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어서 의미 성분 분석법을 통해 세 부사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은 [+시간], [+간격]임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따라 이의 이런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끔-때때로-종종'의 교육 내용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이를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

화용적 층위로 살펴볼 때 '가끔'은 '위로'와 '제안'의 발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앞서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는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듯 보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의미 층위로 인식하고 있어 화용 특성에 대하여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자가 '종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의미 층위로만 이루어져 '주장'의 화용적 특성을 사용할 때 회피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반증'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가끔', '종종'에 대한 체계적이고 더욱 온전한 인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를 화용적 층위로 상황 맥락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발화 의도 반영할 수 있으나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이와 관련된 어감조차 체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화용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재에서 세 부사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고 연습 활동도 없어 학습자는 난도가 낮고 사용빈도가 높은 '가끔'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때때로-종종'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세 부사의 개별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공간적 간격을 가리킬 때 '때때로'는 허용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연습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가끔-때때로-종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중국어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구성된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가끔-때때로-종종'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전이인 간섭이 많이 일으키는 오류가 많아

중국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미 제시, 연습 활동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위에 다루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6> '가끔', '때때로', '종종'의 교육 내용

	가끔	때때로	종종
의미 정보	얼마쯤씩 있다.		
	시간적, 공간적 얼마쯤씩 있다.	때(상황)에 따라서 가끔.	시간적, 공간적 얼마쯤씩 있다.
화용 정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지키고 상대방의 불쾌감을 줄여서 '제안'하려는 화자의 발화 의도. -상대방의 심정을 배려하려는 화자의 공손함을 두드려지게 표현하려는 '위로'의 발화 의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을 공손하게 표현하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청자의 '주의'를 기울이려는 발화 의도.	-예상보다 많이 일어남에 대한 화자의 확신감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발화 의도. -예전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궁금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려는 화자의 '반증'의 발화 의도.
[유의점] -다양한 연습을 제공해야 함. -의미 층위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 화용적 특성 층위의 관계를 활용해야 함. -중국어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구성된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함.			

2.2.3 '자주'와 '흔히'의 교육 내용

앞장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와 '흔히'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의 논의에서 '자주, 흔히' 사이에는 다양한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따라 '자주, 흔히'의 공통적 의미자질과 개별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한 부분도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자주'는 짧은 동안에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습관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충분해야 한다.

화용적 층위로 살펴보면 학습자는 '자주'의 '의지표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 이루어졌으나 일부분 학습자는 언어 간 간섭으로 인해 '흔히'도 비슷한 화용적 특성이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또 '흔히'보다 '자주'가 먼저 익혀져서 '자주' 대신 '흔히'가 '판단'의 화용적 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습자는 '자주', '흔히'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두 어휘의 특정 화용적 특성을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 Ⅱ장에서 다루었던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에 따라 '자주'와 '흔히'를 제시할 때 서로 관련성 없는 독립적인 어휘로 제시하였고, 해당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연습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자주, 흔히' 가운데 '자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번 잦게 되풀이하다'를 의미할 때 '자주', '흔히'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관련 상황 맥락을 제공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이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표Ⅳ-7> '자주'와 '흔히'의 교육 내용

	자주	흔히
의미 정보	여러 번 일어나다.	
	짧은 동안에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보통으로. 특별하지 않고.

화용 정보	-화자의 적극적인 의도나 결심을 강조하고 청자와의 유대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 표명'의 발화 의도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 판단할 때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였으나 완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화자의 '인정'의 발화 의도.
[유의점] -'자주'의 [+습관/버릇]의 의미 성분을 드러날 수 있는 상황 맥락도 제공해야 함. -같은 맥락에 '자주, 흔히'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 '흔히'는 화자의 '인정'의 발화 의도를 드러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연습 활동을 이루어져야 함.		

3. 반복상 시간부사 교육의 방법

위에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해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Ⅲ장에서 살펴보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 또는 뉘앙스에 따른 다양한 이해 양상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하는데 의미·화용적 특성 층위뿐만 아니라 실제 발화 환경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는 층위를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층위에 따라 나타난 어려움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다양한 의미·화용적 특성 교수를 위해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고, 구분 교육을 위해 OHE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1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의미·화용적 특성 교육

문맥 중심 접근법은 학습자들이 문맥에서 낯선 어휘를 만났을 때 스스로 문맥 내에 제공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새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장은미 2010: 185). 문맥 중심 접급법은 학습자의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 여러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네이슨(Nation, 2011: 227-231)에서는 문맥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은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휘 지식은 사전의 뜻풀이에 기술한 개념적 의미인 양적인 지식과 앞뒤 문맥과 결합하여 드러나는 의미 기능 및 화용적 기능 등을 포함한 질적인 지식으로 나눈다. 문맥 중심 교수법은 학습자의 기존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문맥 속의 낯선 어휘를 추론하는 전략이자 방법이다(문지영 외 2021). 그러므로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향상할 수 있는 어휘 지식은 질적인 지식도 포함하는 것이다.

문맥 중심 교수법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의미·화용적 특성을 교수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Ⅲ장의 결론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미묘한 차이나 뉘앙스에 대하여 구분하는 데 혼란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개별적인 화용적 특성에 주목하고 다른 특성에 대한 생소함을 가져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어느 반복상 시간부사를 사용해야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요컨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적절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던 교재 현황처럼 의미 제시까지 그치는 것 보다 글 내 및 글 외의 문맥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적 및 질적 지식을 향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문맥 중심 교수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맥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교수 학습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해당 특성을 드러날 수 있는 짧은 예문이나 대화문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요소나 주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글꼴 또는 억양 변화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게 한다. 둘째, 학습

자들이 제시한 예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추측할 토론 시간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토론이 끝나고 질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자의 토론 결과를 확인하고 스스로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 셋째, 두 번째 절차에서 수집된 학습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해당 특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학습자가 익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문들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많이 제시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해당 특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연습 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 사용할 때 오류를 적게 범하도록 여러 번 연습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맥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활동예시

▶ 단계1: '다시'는 '수정'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포함한 예문을 제시해준다. 또한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수정'을 표현하는 '다시'를 큰 글씨, 밑줄 긋기 등 방법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학습자의 주의를 이끈다.

예: 작품을 다시 만들다.
과제를 다시 쓰다.

✓ 대화1

가: 너 그림 다시 그려야 한대.
나: 왜? 잘 그렸는데.
가: 주제랑 어울리지 않대

✓ 대화2

가: 실험에서 왜 자꾸 실패를 하지?
나: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해 볼까?

▶ 단계2: 교사는 학습자가 '다시'의 '수정'의미를 추측하게끔 질문을 통해 사고를 이끌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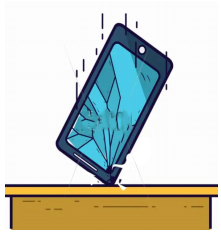
예: 교사: 여기에서 '다시'를 사용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나요?
학생: 어떤 것을 다시 한번 하다.
교사: 네. 좋아요. 그럼 이런 행위를 예전에 했는 것 같나요?
학생: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교사: 네. 예전에 했던 것 같은 데 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나요?
학생: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해야 돼요.

▶ 단계3: 학습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삼아 명시적인 해석으로 '다시'의 '수정' 의미를 요약한다.

▶ 단계4: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기 연습을 통하여 '다시'의 '수정'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 그림1.

답:

그림2. 
답:

3.2 0HE 교수법을 활용한 구분 교육

OHE 교수 방법론은 주로 어휘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방법으로써 관찰(Observation), 가설(Hypothesis), 실험(Experiment) 등 세 단계를 거쳐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 항목의 특성을 발견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다. OHE 교수 방법론은 일찍이 Lewis(1993)에서 언급하였으나 간단히 한 줄로 기술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Angela Lee-Smith(2006)에서야 OHE 교수 방법론을 발전하여 관찰, 가설, 실험 세 단계로 구성한 교수 방법으로 다루어졌다.

관찰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문어 텍스트를 비롯한 구어, 그림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언어 항목이나 어휘 항목을 인지·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서 학습자가 서로 토론하고 해당 과제를 통해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내재된 규칙을 추론하는 가설 단계이다. 끝으로 시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앞서 두 단계에서 습득한 목표 어휘 항목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OHE 교수 방법론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휘 항목(언어 항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즉, 결과에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과정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OHE 교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반복상 시간부사 유의 쌍 간의 구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복상 시간부사의 매우 미묘한 차이로 인해 단순히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보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삼아 능동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적절하다. 이에 따라 OHE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유의쌍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게 하고 장기 기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가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각 단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자 한다. 우선 관찰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반복상 시간부사의 개별 의미를 제시하

고, 의미·화용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으로 가설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반복상 시간부사의 차이에 대한 나름의 가설을 세우도록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시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탐구 및 탐색 활동을 진행한다. 마지막 연습 단계에서는 가설단계에서 획득한 지식을 통제 연습과 생성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깊이 하고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게 한다.

위의 언급한 내용을 '가끔', '때때로', '종종'을 예시로 구체적인 교육 실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관찰단계 (10분)

관찰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가끔, 때때로, 종종'이 포함한 문장은 의미·화용적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인식하게 도입 대화문을 제시한다. 세 반복상 시간부사가 모두 포함된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차이점을 발견하는 능동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 도입 대화 제시

가: 사장님께서 인테리어를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런지 품질 높게 완성됐네요.
나: 그래도 연극의 막을 못 올리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
가: 설마요.
나: 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가끔 스위치 반응이 불량할 때가 있어.
가: 진짜요?
나: 스위치 반응이 괜찮을 때는 연극 막이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반응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연될 때도 있어. 이게 좀 때때로 다르더라.

▶ 가설단계 (20분)

가설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의미·화용적 특성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도록 해당 변별 특성이 드러나는 텍스트를 제공하고,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가끔, 때때로, 종종'의 차이점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어서 학습자가 이에 대한 파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 가설단계 예시

✓ 제시1: 예문 제시

☞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낚시할 만한 곳이 가끔/*때때로/종종 있다.

☞ 물론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통일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로써도 가끔/때때로/종종 가르쳐야 하겠지요.

☞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가끔/때때로/종종 일본말을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하였다.

✓ 제시2: 상황제시

☞ 대화 1

가: 이 그림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나: 슬플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신기한 그림이에요.

때때로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거죠.

☞ 대화 2

가: 가끔 날 위해서 기도해 줘.

나: 그럴게.

☞ 대화 3
가: 사장님께서 인테리어를 면밀히 관찰하고 품질 높게 완성하셨네요.
나: 그래도 연극의 막을 못 올리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

<<참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때때로'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끔 전형적인 예문이나 대화를 제시하고 질문을 제기하거나 학습자들이 스스로 논의하는 방법으로 교수할 수 있다. 제시 끝나고 연습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학습자들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주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실험 단계 (20분)

실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차이를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 연습과 담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다양한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여 유창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억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신장하도록 한다.

▷ 실험단계 예시
연습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또 (　　) 일본 말을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하였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 맑은 날 비가 오는 경우가 (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3) 나는 수시 (　　) 화를 내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연습2.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시골길에 가로등이 (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참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완성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진행해서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여 변별적 차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서 그룹별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연습2. '가끔,때때로,종종'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쓰고 발표하는 방법, 또는 짝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Ⅴ. 결론

반복상 시간부사는 시간부사의 하위부류로 문장의 시간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반복상 시간부사는 유사한 의미로 서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미묘한 차이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반복상 시간부사를 학습하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상 시간부사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구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 및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복상 시간부사의 용어 이해 양상, 개념, 분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용 반복상 시간부사의 목록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선정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 세 명 전문가가 인증하기,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를 통해 빈도 검증하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교육 효용성 검증하기, 어휘 오류율 검증하기, 서정수(2005)체계에 유형화하기 등 총 다섯 가지 절차를 통해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종종, 자주, 흔히'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우리말 부사사전』에서의 뜻풀이를 통해 반복상 시간부사의 공통적 및 시차적 의미자질을 살펴보고, 사전 예문 및 말뭉치를 통해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의 관련된 제시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의미 특성은 물론, 특히 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지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 선다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로 측정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 8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어서 수집된 자료는 Ⅱ장의 이론 근거에 따라 의미·화용적 특성 층위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시-또','자주-흔히'를 사용하는데 범한 오류가 비교적 적었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와는 차이가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때때로-종종'의 경우는 학습자는 이를 사용하는데 범한 오류가 많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를 크게 언어 간 간섭, 언어 내 간섭, 교육 부재 등 세 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다.

Ⅳ장에서는 Ⅱ장 및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마련하였다. 우선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반복상 시간부사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따르기 위해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위계화하도록 하였다. 반복상 시간부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의미·화용적 특성를 함께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분 교육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어서 반복상 시간부사를 의미·화용적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문맥 중심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반복상 시간부사 사이의 변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OHE 교수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반복상 시간부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가 반복상 시간부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 양상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일반화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다시, 또, 가끔, 때때로, 자주, 흔히' 외의 다양한 반복상 시간부사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심층적인 층위로 더 깊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어 교재

북경대학교 등(2011), 『標準韓國語』 第一冊,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등(2012), 『標準韓國語』 第二冊(修訂版),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등(2016), 『標準韓國語』 第三冊 (第5版) , 北京大學出版社.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한국어 1A, 1B, 2A, 2B』,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한국어 3A, 3B, 4A, 4B, 5A, 5B, 6A, 6B』, 투판즈.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14),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출판부.

金重燮 等(2017), 『新標準韓國語』1∽6, 外語教育研究出版社

2. 국내논저

강정희(2020),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창우(2007),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상관관계, 人文論叢 5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83-209.

강춘영(2013), 한중 시간부사 대조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현주(2020),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에 대한 고찰 -'드디어, 마침내, 끝내, 결국'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7, 한국어학회, pp. 1-30.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pp. 57-75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 한국어교육학회. pp. 1-17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pp. 1-26.

강현화(2012), 표준교육과정의 어휘. 문법 위계화에 대한 제언, 국제한국

어 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93-320.
강현화(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학술발표논문집 2012.1, 한국문법교육학회 pp. 201-212.
강현화・원미진(2017), 한국어교육학의 이해와 탐구, 한국문화사.
고산(2014). 한중 시간부사의 대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pp. 27-59.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권혜진(2008), 현대 국어 시간 부사의 유의 관계 연구: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령(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2017), 진술화행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pp. 31-58.
김민수(1978), 국어문법론, 一潮閣.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 학고방.
김선영・전후민(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사전에서의 화용적 정보 기술 방안, 한국사전학 16, 한국어사전학회, pp. 30-68.
김선지(2007), 일본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위로 화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주(201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빈도부사의 어휘 정보 연구 -'늘, 언제나, 항상'을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 56, 한민족문화학회, pp. 383-409.
김중섭・김정숙・강현화・김재욱・김현진・이정희(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김지선(2019), 협동적 문맥활용 어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 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 215-39.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高利金(1990),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 차이, 白鹿語文 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pp. 57-89.
나고영(2010),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문법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린미(2019),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선청어문 4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 281-319.
만리(2010), 한국어 교재의 시간부사 분석 유의어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만리(2010), 한국어 교재의 시간부사 분석: 유의어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금현(2005), 한국어 의미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pp. 154-155.
문지영(2021), 시청각 자료 중심 방법과 문맥 중심 방법의 아랍어 어휘 학습 비교 연구, 중동연구 39.3,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pp. 151-88.
민현식(2004), 國語의 時相과 時間副詞, 한국학술정보.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61-334.
박민영(2019), 한국어 생략 유형별 복원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익(2010), 대화분석론, 백산서당.
박철우(2015), 화용론의 현재와 미래, 語文論集 62, 중앙어문학회, pp. 105-140.
백인영(2019), 한국어 빈도부사의 의미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범위평(2020), 부사어 담화표지 '좀', '그냥'의 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보일평(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 -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봉원덕(2004), 국어 시간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범범(2018), 중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의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언(2017), 시간부사 ‘벌써,이미’의 의미·통사적 특징과 중국어에서의 대응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희정(2019), 한국인 학부생과 외국인 학부생의 부사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108, 한국언어문학회, pp. 243-92.
석전손(2014), 한중 빈도부사의 대조 연구 극고 고 저빈도부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pp. 41-68.
성미정(2023), 신경화용론 방법론을 활용한 발화 의도 처리의 인지 기제 규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손남익(2014), 부사사전, 역락.
순총양(202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빙지에 (2016), 한자어 계열 빈도부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단(2011), 한중 시간부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설(2022), 한·중 빈도부사에 대한 대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송(2019),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변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문수(2022), 한·중 빈도부사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온영두(1998), 국어 부사의 문법 기능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단(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원(202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부사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인혜(1991), 우리말 시제 / 상 표현과 시간 부사, 한국언어문화 9, 한국언어문화학회, pp. 161-200.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 99-128.
유우흠(2022), '다시'와 '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혜령・김유미(2008), 담화 유형과 화행 기능과의 상관성 연구, 언어와 문화 4-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 179-201.
윤새롬・이지은・김영규(2017), 입력 강화의 정의와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의 적용에 관한 고찰, 외국어교육연구 3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pp. 29-48.
이석규(1988), 시간부사 의미연구를 위한 시론, 선청어문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 364-379.
이슬(2020),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유의어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2021), 화용적 추론을 활용한 시사만화 텍스트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정(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행(1989), 후기 중세국어 시간부사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 101-121.
이주행(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 月印.
이지용(2011),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pp. 7-32.
이진주(2021), 한국어 대립 표현 유사 연결어미 교육 내용 연구: '-지만', '-는데', '-으면서', '-더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철우(1982), 현대 국어 시간부사의 의미·통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송지현(2016), 어휘 확장을 활용한 등급별 어휘 학습 내용 연구, 어문론집 68, 중앙어문학회, pp. 359-389.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임진숙(2018),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문법 교수가 한국어 통제 작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 131-159.
장우정(2019), 한·중 반복성 시간부사 대조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웨신(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은미(2010), 문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효과 연구, 태릉어문연구 1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 pp. 173-192.
조경아(2003),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request) 화행에 관한 연구 - 한국인 화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간의 대조를 통해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동홍(2017), 한국어의 빈도부사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민정(2010), 학습자 사전에서의 유의어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pp. 349-387.
조방방(202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유미(2009), 한국어 사건 양화 부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종예(202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선정 및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다위(2011), 한중 부사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영하(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희릉(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아(2007),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아(2007),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묵・이민호・김상욱. (2016), 어휘습득과 입력강화의 관계에 대한 시선추적기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58, 새한영어영문학회, pp. 197-219.
최수정(2015),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적 특성 기반 문법 교육 연구 - '(이)나'와 '(이)라도'를 바탕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211-237.
최옥춘(2013),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연구-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화정(2010), 한국어 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시간부사와 정도부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풍아려(2014), 한국어와 중국어 상에 대한 대조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은경(2021), 의미 중심 형태 교수의 입력 강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지이・박경남・박선희.(2021), OHE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 방안, 새국어교육 128, 한국국어교육학회, pp. 179-208.

홍종명·이준호·안정호(2020),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 - 국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51,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pp. 79-117.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223-245.

황유연(2020),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얼른, 어서, 빨리" 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Gao Yubing(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료상 보조동사 교육 연구 : '버리다', '내다', '말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uang Lianmei(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 형용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e Thu Trang(2018), 한국어·베트남어 유의어 시간부사 비교분석 - 반복성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018.0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212-226.

LI YU(2019), 중국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한국어 유의어 습득 양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AN WEI(202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간부사 사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Xia Xue(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연구 :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Zhan Zheng(202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국외논저

Brown, H. Douglas(2007),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이홍수 외 역(2011),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Catherine Doughty(2002),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quisition, Cambrige University Press.
Nation I.S.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金興圭(2004), 『韓中辭典』, 高麗大學民族文化研究院.
呂叔湘(2002),《呂叔湘全集·第五卷·現代漢語八百詞》, 遼宁教育出版社.
倪夢嫻(2016), 對外漢語視角下“經常”、“常常”、“往往”的對比研,.南昌大學碩士學位論文.

<참고 사이트>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onseidic/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부록

[인적 사항]

중국인 고급 학습자	
1. 성별	한국어 모어 화자
2. 연령	1. 성별
3. TOPIK 등급	2. 연령
4. 한국어 공부시간	3. 업종
5. 업종	

[테스트 내용]

다음 문제는 괄호안에 적절한 부사를 고르세요.

6. 하루 (　　) 하루가 흐른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7.　똑같은 사고가 (　　) 났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8. 그는　(　　)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9. 운동을 통해 건강이　( )　좋아졌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0. 가: 정말 고마운데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러지 말고 ( ) 한번 생각해보세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1. 너 과제 (　　) 작성해야 해.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2. 어제 먹은 오이소박이가 참 맛있던데 ( ) 없어?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3. 이 옷이 나한테는 너무 작지만 유민이라면 ( ) 맞을지도 모르겠다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4. 가: ( ) 말해서 아무리 멋진 광고도 어떤 상품을 한 번 써 보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5. 가: 왜 ( ) 늦게 왔어요?

나: 어제 술을 마셔서 늦게 잤거든요.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6. 가: 갑자기 당신이 무서워지네요.

나: 그건 ( ) 무슨 생뚱맞은 말씀?

A. 다시 B. 또 C. 둘 다 맞다. D. 기타_

17. 가: ( ) 잘못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와서 사과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A. 다시 B. 또 C. 다시는. D. 또는

18. 맑은 날 비가 오는 경우가 (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19. 아래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시골길에 가로등이 ( )있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0.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또 ( ) 일본말을 섞어가며 일장연설을 하였다.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1. 나는 수시 ( ) 화를 내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2. 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 ) 먹어야 맛있지.

나: 맞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야.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3. 상황: 화자'나'는 현기증이 났는데 화자'가'가 걱정할 까봐 괜찮다고 응답하다.

가: 괜찮으세요?

나: 네. 괜찮아요. (　　) 현기증이 나서, 그래 그랬을 거요. *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4. 상황: 두 사람은 방송의 시청률 변화를 이야기한다.

가: 잘 나갈 때 삼사천 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잘 안 나갈 때 백 명이 안 될 때도 있죠.

나: 아~ 그렇구나.

가: 그러니까 이게 좀 (　　) 달라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5.가: 요즘 전동 휠체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나요?

나: 전동 휠체어 사고가 생각보다 (　　) 일어나는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6. 가: 유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　　) 듣곤 했는데, 요샌 통 소식이 없네.

나: 그러게, 나도 요새 만난 적도 없고.

A. 가끔　B. 때때로　C. 종종　D. 다 맞다.

27. 그것은 외교 교섭에서 (　　) 있는 일이기도 하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28.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　　) 싸우다 보니 부부 싸움은 버릇이 되었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29. (　　) 이럴 때 찾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다.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30. 가: 요즘도 ( ) 가슈?

나: 매일 가죠. 혜초 여사 가게가 거기니까.*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31. 가: 병문안, ( ) 갈 게!

나: 오지마.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32. 가: 증명사진이라 하면 다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나: 증명사진이라 하면 ( ) 똑같은 배경에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떠오르곤 하죠.

A. 자주 B. 흔히 C. 둘 다 맞다. D. 가타_

[학습 정보]

33. 교재에서 제공하는 학습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주 충분하지 않다.

B. 비교적 충분하지 않다.

C. 보통이다.

D. 비교적 충분하다.

E. 아주 충분하다.

34. 수업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A. 아주 만족하지 않다.

B. 비교적 만족하지 않다.

C. 보통이다.

D. 비교적 만족하다.

E. 아주 만족하다.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for Chinese Learners

JIN DONGME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play a basic role in indicating repeated time points or time positions and are also used frequentl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as a whole, and the pragmatic characeristics are overlooked. In addition, learners are making errors and having difficulties when using them due to lack of awareness of subtle differences between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repeatedly targeted the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dasi, tto, gakkeum, ttaettaero, jongjong, jaju, heunhi". In this regard, it is intended to identify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eristics and to prepare efficient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hat can contribute to Chinese learners making fewer errors when using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use patterns of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in the study of repetitive adverbs of time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focusing only on the use patterns of semantic characteristics of repetitive adverbs of time by Chinese learners. By examining the difference in , we want to reveal the cause of the error in more detail and in-depth.

To this end, Chapter II reexamined the use, concep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repeated adverbs of time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terms,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applied in this paper. Subsequently, referring to the selection method of educational vocabulary lists in the field of Korean pedagogy research, "dasi, tto, gakkeum, ttaettaero, jongjong, jaju, heunhi" was selected and their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ere examined in two layers of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For the semantic part, semantic qualities were extracted by analyzing examples such as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dictionaries and corpus of all by applying semantic component analysis. In addition, it was proved by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to supplement objectivity and validity. Next, in order to review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repetitive time adverbs, first, a speech analysis feature was prepar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conducted using everyone's corpus and prior examples. Finally, by examining the aspects presented in the textbook to examine the educational status of repetitive time adverbs,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presentation was insufficient, especially the presentation of pragmatic characteristics was not in depth.

In Chapter III,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etical premise of Chapter II to examine the use of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by Chinese learn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80 Chinese advanced learners and 30 Korean native speakers, and six learners were selected to conduct follow-up interviews. First of all, it was objectively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 significant level through Fisher Exact Test. Subsequently, the patterns of use were divided according to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errors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 mother tongue and the complexity of the target language were also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in the area and the lack of education.

Chapter IV first revealed the educational purpose and goal of teaching and learning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Chinese learners by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Chapter II with learners' understanding patterns in Chapter III. Subsequently, the meaning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repetitive time adverbs and the results of learners' usage patterns were combined to describe the educational contents that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to be meaningful and relevant to each other, focusing on the parts experiencing confusion. Next, in order to properly teach this, a context-oriented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semantic and utilitarian characteristics and an OHE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classification education were proposed.

Finally, Chapter V consists of a summary of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and prospect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on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treated as subclasses of time adverbs, and there are not many overall studies. In addition, educational measures designed based on learners' use are insufficient. This study consists

of an overall discussion of repetitive time adverbs, and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and dealing with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for Chinese learners.

keywords : Korean Education, Iterative Aspect temporal adverbs, Chinese learner, context-oriented teaching method, OHE teaching method

Student Number : 2021-29321